

#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 연구: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김영재 박지은(편)



# 서 문

김영재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박지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빠른 세계화, 도시화, 기술 혁신의 시대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대중관광 발전의 영향부터 디지털 기술 발전,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 기관과 다양한 분야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산과 연관된 쟁점들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역할, 즉 학제 간 연구, 역량 강화 및 국제 협력을 육성하는 역할도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되고 있다. 2017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역량 강화"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산을 연구하는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학자, 실무자, 정책 결정자 및 장인과 공예가를 모아 연구, 교육, 기록 보존 등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 교류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지원, 실무 및 연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석좌 프로그램은 유네스코의 인문주의적 가치를 교육 활동을 통해 전파하고, 현재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의 초기 노력은 캄보디아 문화유산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문성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 재료 및 기술 보존에 실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전통 재료(금박, 접착제, 직물 등)와 전통 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들은 다양한 문화의 보존 관행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데 기여하였다.

## 2023년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구: 보다 확장된 학제간 문화유산 연구 및 협력

문화유산은 국가 정체성과 집단 기억의 근본적인 측면을 나타내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기초를 다진다.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역량 강화"는 현장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외에도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지원, 국제 포럼과 출판물 통해 학술적 대화를 촉진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매년 석좌는 전 세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문화유산 보존의 최신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포럼은 지식 교류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유산 분야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글로벌 담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러했듯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또한 여행 제한과 대면 협력의 제한을 겪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는 온라인 연구, 디지털 협력 가

상 교육으로 초점을 전환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국제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학제 간 문화유산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합하여 문화유산 교육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륙의 고등 교육 기관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해당 유산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에 위치한 연구자들의 시선에서 분석한 연구 주제와 자료 및 공법에 초점을 맞춘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배경과 전문지식,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연구자들을 초청하였다.

## 문화유산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다각적인 차원 탐구

문화유산 보존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임을 인식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는 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강력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은 전통 재료의 보존,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 그리고 문화유산 실천에서 현대 기술의 통합과 같은 중요한 문화유산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는 학제 간 및 지역 간 연구를 중시하며, 2023년에는 실질적인 세계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유산 보존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빠른 세계화와 기술적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유산의 개념은 도시화, 디지털 혁신,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들에 의해 재정의되고 있다. 이번 논문집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문화유산이 어떻게 인식되고, 보존되며, 활용되는지를 탐구한다. 동아시아에서의 자단목의 사용에 대한 역사적 맥락부터 유네스코 창의 도시 개발에서의 디지털 기술 통합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들은 문화유산의 전통적 및 현대적 차원 모두를 조명한다.

### 1. 동아시아에서의 자단에 대한 새로운 관점

첫 번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자단'으로 알려진 자단목의 문화적 및 역사적 중요성을 조사한다. 고유한 색과 향으로 유명한 자단목은 중국, 한국, 일본에서 향, 약재, 공예품으로 사용되어 왔다. 자단목은 동아시아 문화유산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도에서는 자단목이 임업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 중 하나로 여겨지며, 그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Arunkumar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자단목은 수 세기 동안 인도 문화와 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 나무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목재 중 하나로 여겨지며,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나라에서 그 독특한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불법 벌목과 남획으로 인해 자단목은 현재 IUCN 적색 목록에서 취약종으로 분류되고 있다(Sandeep & Manohara, 2022). 문화유산에서의 물질적 및 이론적 중요성 외에도 일부 연구에서는 자단목이 인도에서 현대 의료관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Vellore & Vudhayaraju, 2020). 한국에서는 고려 왕조(918-1392) 시기에 자단목이 특히 중요했다.



고려시대에서 자단목은 외국 사신 접대, 왕실 행사, 의례, 불교 행사, 그리고 대중문화 표현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었고, 귀족적 취향과 대중적 취향을 모두 반영하며 개방성과 세련미를 나타냈다(Kwon, 2013). 이번 연구에서는 자단목이 중국 공예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자주 향과 색이 비슷한 향나무와 혼동되었던 자단목의 상징적 중요성을 탐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예품 유물과 종 분석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며, 동아시아에서 자단목의 문화적 · 물질적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틀 구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유네스코 석좌 협약 제2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교육, 정보, 문서화의 통합 시스템을 촉진하는 것"을 유네스코 석좌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특정 목표 중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사용되는 전통 재료와 기술에 대한 국내 및 국제 교육 워크숍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두 번째 연구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에서 문화유산 교육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학위 수료 과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한다. 이 교육 틀은 한국 문화와 유산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모델을 통해 수료증과 동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탐구한다. 이 연구는 글로벌 문화유산 전문 지식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며, 반응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레임워크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창의적 도시 개발에서의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교차점

디지털 유산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중요시하며 특화하여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유망한 분야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 석좌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역량 강화"는 이미 디지털 유산 분야의 연구를 지원해 왔다. 작년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에서는 두 가지 연구가 이 주제에 대해 진행된 바 있다. 2022년도 첫 번째 연구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유 · 무형 유산의 3D 가상 콘텐츠 제작 가능성을 탐구하였으며, 이는 이전에는 학문적 연구에 국한되었던 문화교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유정민 외, 2022). 두 번째 연구는 유산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특히 박물관과 같은 문화유산 기관에서 새로운 보존, 관리, 활용 방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유산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이종욱 외, 2022). 올해, 유네스코 석좌 연구에서 디지털 유산 분야의 초점은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세계유산으로 옮겨졌다. 이 연구는 AI, AR, VR,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문화유산 보존과 창의적 도시 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고 있으며, 조지타운의 보존 관리에 이러한 기술을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조지타운 및 아시아 전역의 다른 역사적 도시에서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박물관, 텐진의 국제 조계지에 대한 상반된 유산 이해

2023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주제 연구의 1단계가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는 유네스코 석좌/유니트윈 네트워크 “Culture, Tourism, Development” 운영 기관인 프랑스 파리 1대학의 고등관광연구소(EIREST)의 연구자들이 중국 텐진의 옛 조계지를 중심으로 유산의 상반된 해석, 혼종성, 그리고 현대적 맥락에서의 유산화 과정과 관련된 세 가지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제시하였다. 텐진은 15세기부터 베이징의 정치적, 군사적 배후지로 성장하며 항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 도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1840년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이후 서양 열강들과 충돌하게 되었고, 중국이 반봉건적, 반식민지적 상태로 전락하면서 텐진은 9개국의 외국 조계지로 분할 점령되었다. 오늘날 텐진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역사적 경관을 자랑하는 도시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도 텐진의 역사적 경관을 문화관광자원으로 보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애국주의 교육 활동을 통해 집단 기억을 재현하고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오일환, 2020). 2023년도 특별 주제 연구의 첫 번째 주제는 박물관을 통해 본 텐진 국제 조계지의 상반된 유산내러티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조계지들은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중국 내에서 논란이 많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 연구는 박물관 내 서사 분석을 통해 조계지가 현대성의 상징으로, 중국 현대 생활과 분리된 외국인의 거주지로, 그리고 애국적 성찰의 원천으로서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 관점을 밝혀냈다. 이는 현대 박물관 맥락에서 어떻게 논란이 되는 역사가 재현되는지에 대한 더 넓은 담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5. 텐진의 조계지 공원: 혼종적 문화유산

텐진의 옛 외국 조계지와 관련된 두 번째 연구 주제는 공원이다. 역사적 공간들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장소로 기능하지만, 때로는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획되며 부정확하게 구성된 공간이 될 수 있다(이경진, 김중재, 2014). 이러한 공간 내에서의 유산 서사의 적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는 2005년 도시공원법 개정 이후 역사공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도시 주민들에게 휴식과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길지혜 외, 2016). 역사공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공간들은 역사적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역사와 관련된 시설, 광장, 휴식 공간, 놀이 공간, 교육 및 문화 공간, 편의 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원은 공간 계획, 역사적 사실 전달, 현대적 생활 양식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 확장 속에서, 원래의 조계지 공원의 역사와 독특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통찰은 이러한 유산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현대적 도시 생활의 요구에 부응하며, 도시의 독창적인 특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3년도 특별 주제 연구의 두 번째 주제는 텐진의 조계지 공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 공원이 서양과 중국의 영향으로 형성된 혼종적 공간으로서의 역사적 진화와 현대적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공원의 창조, 발전,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탐구하며, 이러한 독특한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도시화의 압박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이 연구는 텐진의 조계지 공원을 역사적 보존과 도시 재생의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깊은 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6. 왕홍 도시화의 부상과 그것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산업혁명 이후, 서유럽의 빠른 도시화를 촉발시킨 시대에 대량 관광은 '실제' 세계와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때로는 도전하는 건축 환경을 만들어냈다(Gravari-Barbas et al., 2019). 세 번째 특별주제 연구는 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인 '왕홍'의 등장과 그들이 유산 서사 형성과 재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텐진 우다오 지역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왕홍 도시화는 텐진 우다오 지역의 문화유산 홍보 및 소비 방식을 변화시켰다. 현지 기업가들은 왕홍 이미지를 유산지를 마케팅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상징적 도구로 채택해 왔고, 이번 연구는 이러한 이미지가 어떻게 유산지와 관련된 상징적 도구로 기능하는지, 특히 식민주의 이후 맥락에서 왕홍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왕홍 현상이 단순히 유산 홍보를 넘어서 유산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 전문가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생산되는 '시물라크럼' 이미지의 창조 실습을 분석하며, 왕홍이 유산 창조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상의 표현이 어떻게 유산을 상품화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성과 문화의 상업화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 현상의 메커니즘을 탐구함으로써, 연구는 디지털 시대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더 넓은 영향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7. 유산 보호에 대한 대안적 저항 형태 탐구

마지막 논문은 동남아시아 국경 지역에서 전통적인 유산 보호 관행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 형태에 대한 연구 노트이다. 이 연구는 공동체가 일시적인 관리와 같은 대안적 전략을 사용하여 살아있는 유산 및 종교적 유산 가치를 보호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과정을 그려냈다. 연구는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전통적인 유산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 때때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 결론: 문화유산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기

2023년도에 진행된 일곱 편의 연구논문들은 문화유산, 도시 개발, 그리고 디지털 혁신 간의 진화하는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탐구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재료와 교육 체계에서부터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대안적 저항 형태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집은 문화유산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떻게 보존되고, 적응되며,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유네스코 석좌는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연구를 진전시키며, 21세기 문화유산 보존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하고,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도전에 적응함으로써, 석좌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유산 관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재료에 대한 연구에서 디지털 기술 탐구, 그리고 사회적 포용에 대한 헌신에 이르기까지, 석좌는 문화유산 보존 분야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학문적 교류, 기술적 논의,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역량 강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유산 보존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Arunkumar, A. N., Joshi, G., Rao, M., Rathore, T., & Ramakantha, V. (2016). The population decline of Indian sandalwood and people's role in conservation—An analysis. In *Handbook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pp. 10.1007/978-3-319-31014-5\_22).
2. C, S., & Manohara, T. (2022). Origin, tradition and cultural importance of sandalwood in India and its role in conservation of natural populations. In *Sandalwood: Cultivati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pp. 10.1007/978-3-030-93394-4\_2).
3. Gravari-Barbas, M., Graburn, N., & Staszak, J.-F. (Eds.). (2019). *Tourism fictions, simulacra and virtualities* (1st ed.).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429278952>
4. Jeongmin Yu et al. (2022), A Study on the Topic Discovery to produce Tangible and Intangible Virtual Content of the Joseon Tongsinso,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Pacific Heritage Studies*, 4-36
5. Jongwook Lee, Hyunbin Shin, & Seoyeon Im. (2022), Development of a Training Program on Heritage Data Management and Use for Heritage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Pacific Heritage Studies*, 37-72
6. Vellore, R., & Vudhayaraju, V. (2020). Nature tourism in India-Red Sander plant species of YSR District, Andhra Pradesh. *TRIVALENT: Journal of Archaeology, Tourism & Anthropology*, 1(1), 13–23. <https://doi.org/10.4038/tjata.v1i1.25>
7. 길지혜, 박희성, 박재민(Gil, Jihye, Park, Hee-Sung, & Park, Jaemin). 「국내 역사공원의 지정 및 조성 경향 분석 (Analysis on trends in th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historical parks in Korea)」. 『한국조경학회지』, 44(2), 130–142. 2016.
8. 권순형(Kwon, Soonhyung). 「고려 전 · 중기 향과 문화 생활(Incense and Cultural Life in the Early and Mid-period of Koryo Dynasty)」. 『한국문화연구』, 25, 7-35. 2013.
9. 오일환(Oh, Il whan). 「중국 텐진(天津)조계지의 역사경관과 박물관 전시 (A study on historical landscapes and museum exhibitions in concessions of Tianjin, China)」. 『박물관학보』, 39, 377–401. 2020.
10. 이경진, 김중재(Lee, Kyungjin & Kim, Jung Jae). 「내러티브 구성기법을 적용한 윤봉길 역사공원 기본계획 (Master plan for Yun Bong-Gil Historical Public Park applying the narrative movie composition method)」. 『휴양및경관연구』, 8(2), 75–84. 2014.

#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연구:

---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 contents

## 01

### 20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팀

#### 동아시아 전통에서 자단(紫檀)의 의미와 용도

7

신 숙, 하수민, 오은서, 이유진

#### 아시아·태평양 전통재료 및 기술공법의 지속가능한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한 국제 문화유산 교육과정 및 체계 조사

41

김영재, 김병완

## 02

### 2023 해외 연구자

#### 페낭 조지타운 세계유산지역에서의 디지털 기술, 문화유산 보존, 그리고 창의 도시 개발

65

쿠 수엣 렌

### # 2023 해외연구자 특별연구주제: 중국 구 조계지 텐진(제 1부)

#### 1) 불협화음의 유산 내려티브:

##### 텐진의 전 국제 조계지 박물관에서의 애국심과 향수 사이의 균형 (1부)

67

마리아 그라바리-바르바\*, 유에 류, 첸시 셴, 산드라 귀낭

#### 2) 텐진 조계지의 공원: 역사, 혼종화, 그리고 소비 (1부)

69

유에 류\*, 마리아 그라바리-바르바, 첸시 셴

#### 3) 왕흥 도시주의가 변화시키는 유산 경관: 온라인 인기 관광목적지로서의 조계지

71

첸시 셴\*, 마리아 그라바리-바르바, 유에 류

#### 유산 보호에 저항하기: 동남아시아 국경지대에서 유산 보호와 저항의 관계 탐구

73

안나 칼스트롬





01

# 2023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팀 결과보고서

동아시아 전통에서 자단(紫檀)의 의미와 용도

신 속, 하수민, 오은서, 이유진

아시아·태평양 전통재료 및 기술공법의 지속가능한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국제 문화유산 교육과정 및 체계 조사

김영재, 김병완

## 동아시아 전통에서 자단(紫檀)의 의미와 용도

|      |                         |
|------|-------------------------|
| 신 숙*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교수*    |
| 하수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 전공 박사과정 |
| 오은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 전공 석사과정 |
| 이유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 전공 석사과정 |

### 초록

전통사회에서는 특유의 색상과 향이 있는 자단으로 향료와 약을 만들고 공예품을 제작하였다. 자단은 인도 남부에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 걸쳐 분포하는 상록활엽교목으로, 고대부터 중요한 교역 물품으로 인식하였다. 향료와 약재, 공예품의 재료로 사용된 기록은 다양한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단은 특정 나무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나무를 통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단은 여러 특성을 공유한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통칭하여, 동아시아에서 자단에 대한 인식과 범위는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단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고, 자단이 사용된 용도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서, 왕실 기록, 의학서적 등의 문헌을 살펴보고 유물의 재료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재료가 사용된 사례를 집성하고 분석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자단이 지닌 문화적 의미와 용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향나무를 자단이라 인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자단의 특징인 특유의 향과 색상이 향나무와 유사하여 혼동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가의 재료인 자단이 높은 신분과 부의 상징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자단은 한반도에 자생하지 않아 더욱 귀한 재료로 인식되었고 점차 자단의 명칭을 향나무까지 확장하여 사용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자단을 주로 공예재료로 활용했으며, 자단을 분향으로 사용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분향으로 선호된 침향은 공예품으로 제작된 경우가 희소하다. 이처럼 중국은 공예 재료로 자단을 선택하였고 색상, 단단함, 향, 무게감 등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가구, 악기, 함, 필통 등의 일상품에서 여의와 같은 종교 물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예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장식 재료로 쓰인 경우도 있다. 또한 자단에 목화기법을 장식하는 예도 다수 전한다. 자단목을 활용한 목화 공예품은 황실에서 사용하는 진귀한 물품이었다.

자줏빛 향나무라는 뜻의 자단은 한국, 중국, 일본이 다르게 인식했다. 동아시아에서 지칭한 자단의 수종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일반적인 나무보다 붉은 색을 띠고 좋은 향기가 나는 공통점이 있다. 나라마다 다른 나무를 자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나무의 자생 여부와 조달 방법, 그리고 고유한 특성에 맞게 활용했던 것이다.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자단 공예품의 유행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과 지역에 따라 자단의 의미가 변화하고 여러 수종의 나무를 자단으로 인식했던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단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관련 유물의 수종 분석이 확대된다면 자단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공유한 자단의 명칭과 나라마다 실제 사용한 수종, 그에 따른 활용 방법을 전체적으로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 서론

전통사회에서는 특유의 색상과 향이 있는 자단으로 향료와 약을 만들고 공예품을 제작하였다. 자단은 인도 남부에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 걸쳐 분포하는 상록활엽교목으로, 고대부터 중요한 교역 물품으로 인식하였다. 향물과 약재, 공예품의 재료로 사용된 기록은 다양한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데,<sup>1</sup> 자단은 특정 나무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나무를 통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단향(檀香)의 항목에서, 조선에서 이르는 자단은 삼나무와 전나무의 일종으로 나뭇결이 자색인 나무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자단은 붉은색을 띠는 여러 종류의 나무에 통용되어,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자단의 초기 연구는 명칭과 범위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었다.

자단에 관한 선행연구는 조항범의 노간주나무, 노린재나무, 담쟁이, 엄나무에 관한 국어사 연구,<sup>2</sup> 여찬영의 떡갈나무류 명칭 연구,<sup>3</sup> 김영숙의 조경사에서 본 대추야자나무, 도금양나무, 에셀나무 등에 관한 내용이다.<sup>4</sup> 우리나라 고문헌에 보이는 자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광성은 자단과 백단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 바 있다.<sup>5</sup> 한편 자단을 장황의 재료로 주목한 연구도 있다.<sup>6</sup> 그럼에도 자단에 대한 인식과 재료의 특성, 용도에 대해 집중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단은 여러 특성을 공유한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통칭하여, 동아시아에서 자단에 대한 인식과 범위는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단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고, 자단이 사용된 용도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서, 왕실 기록, 의학서적 등의 문헌을 살펴보고 유물의 재료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재료가 사용된 사례를 집성하고 분석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자단이 지닌 문화적 의미와 용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1 자단은 향약재(香藥材)로 사용되어 『동의보감』, 『광제비급(廣濟秘笈)』, 『본초강목』 등 다양한 의서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자단이 공예품으로 사용된 가장 옛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왕실에서 자단이 사용된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 조항범, 「몇몇 ‘나무’ 이름의 어휘사(2) — ‘노간주나무, 노린재나무, 담쟁이, 엄나무’를 중심으로 —」, 『국어사연구』 31, 국어사학회, 2020.

3 여찬영, 「나무 명칭어 한자 자석 연구: 떡갈나무류를 중심으로」, 『어문학』 74, 한국어문학회, 2001.

4 김영숙, 「도금양나무(Myrtus communis)의 명칭문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2, 한국전통조경학회, 2017.; 「대추야자나무(Phoenix dactylifera)의 명칭문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1, 한국전통조경학회, 2018.; 「에셀나무(Tamarix aphylla)의 명칭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7-1, 한국전통조경학회, 2019.

5 공광성, 「고전식물명 자단과 백단에 관한 고찰」, 『국학연구』 32, 한국국학진흥원, 2017.

6 장영희, 「동양 장황에 사용된 축목과 축두에 관한 연구」, 『박물관 보존과학』 19, 국립중앙박물관, 2018.

## 2. 자단의 인식과 특성

우리나라에서 자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시대에 집중된다. 조선의 자단은 향목(香木)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강원, 경기, 충청 지역의 약재와 토공으로 자단(紫檀) 혹은 자단향(紫檀香)이 기록되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언급된 자단 또한 약재와 향으로, 강원도의 것을 최고로 꼽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왕실 기록을 통해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조선의 자단이 향재로 쓰였고 자생하던 수종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 조선의 학자들은 중국과 조선의 자단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덕무, 서유구, 이규경 등의 학자들은 청의 명물학과 고증학을 수용하며 조선의 자단을 고찰하였다. 이덕무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 자단의 정의를 서술하였는데, 중국 양신(楊慎)의 『단연록(丹鉛錄)』에 나타난 자단에 대한 기록을 참고하였다. 자단목은 교지(交趾)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무의 성질이 단단하고 새것은 빗갈이 붉어 물에 담그면 그 물로 붉은색을 물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화가들이 사용하는 물감으로 단자(壇子)가 있는데, 이를 연단(燕檀)이라 하고 세속에서는 자단이라 부른다고 설명하였다.<sup>7</sup> 이를 토대로 이덕무는 자단을 소목(蘇木)으로 정의하였다. 소목은 민간에서는 단목(丹木)이라 하는 것으로, '檀(단)'자와 '丹(단)'자의 음이 서로 같아 혼동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이는 향목에 속하는 자단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였다.<sup>8</sup> 소목이란 콩과에 속하는 상록고목을 이르며, 단목은 붉은 속살을 가진 나무를 말하기도 한다. 이덕무는 나무의 빗갈과 '단'이라는 명칭의 유사성으로 자단과 단목, 즉 소목이 혼동된 것으로 생각하며 향목인 자단과 다른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중국과 조선의 자단이 서로 다른 나무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임원경제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나무와 전나무의 일종으로 나뭇결이 자색인 나무를 가리켜서 자단이라 하였으나, 그것들은 실제로는 자단이 아니다. 『본초서(本草書)』에서 "단향의 줄기와 잎은 모두 여지(荔枝)와 비슷하고, 껍질은 청색이며 반들반들 윤기가 있다"고 했으니, 이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자단과는 같은 종류가 아니다.’<sup>9</sup>

7 李德懋, 『靑莊館全書』, 蒟緣子. 浸以蠶蜜. 點以燕檀. 所謂燕檀. 盖以燕脂合檀木也. 紫檀木. 出交趾. 性堅. 新者色紅. 以水濕浸之. 色能染物. 又画家合色. 有檀子用銀朱淺. 入老黑燕脂合之. 故曰燕檀. 俗曰紫檀色. 訛爲紫棠也.

8 李德懋, 『靑莊館全書』, 案紫檀似是藕木. 俗名丹木. 不必單指色赤. 而名曰丹木. 亦應檀與丹同音. 而非香木之紫檀也.

9 徐有渠, 『林園經濟志』, 「怡雲志」, 案, 東人指杉, 檜中一種, 木理色紫者爲紫檀, 其實非也, 本草云: “檀香樹, 葉, 皆似荔枝, 皮青色而滑澤”, 與吾東所謂紫檀不類. [풍석문화재단, 『임원경제지』, 「이운지」 1, 2019, p.359.]

서유구는 『본초서』에서 설명하는 단향과 조선에서 이르는 자단을 비교했을 때 두 자단이 다르다 하였다. 자단과 비슷한 것으로 언급한 여지와 삼나무, 전나무는 모두 상록교목에 속하나, 여지는 잎이 넓은 활엽수이고 삼나무와 전나무는 잎이 좁은 침엽수로 견딜 수 있는 기후가 다르다.

『단연록』에서 말한 자단의 산출지는 교지로, 지금의 베트남 지역을 이른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는 뚜렷한 사계절로 인해 추위가 강하고 건조한 날이 더 많은 한반도 기후에서 자생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이르는 자단은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지만 조선의 자단은 조선에 자생하는 것으로, 이덕무가 고찰한 바와 같이 『단연록』의 자단은 조선의 향목인 자단과 다른 나무를 가리킨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자단향변증설(紫檀香辨證說)」은 조선에서 사용한 자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공사간의 제향에서는 민간에서 말하는 목향(木香)만 사용한다. 간혹 자단향이라고도 말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목향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보았는데, 이것은 곧 백국(柏栴)이었다. 세상에서 이른바 ‘향나무’이다. 백국(柏栴)은 비록 향은 나지만 단향은 아니다. 역지로 이름을 붙여 자단향이라고 하는 것이다. 양평군(陽平君) 허준(許浚)이 엮은 『동의보감(東醫寶鑑)』 「탕액(湯液)」, 〈목부(木部)〉에서 ‘자단’이라고 잘못 주석을 단 결과다. 이시진의 『본초강목(本草綱目)』 ‘단향’ 아래 붙은 주석을 살펴보면 저절로 분명해질 것이다. 백국(柏栴)을 단(檀)으로 잘못 생각한 또 하나의 예증(例證)이 있다.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서는 “백(柏)은 국(栴)이고 측백(側柏)이니 민간에서는 백단(白檀)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하나같이 잘못 안 것이다.’<sup>10</sup>

이규경은 향나무가 언제부터 자단향이라 불렸는지 알 수 없으나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잘못 주석을 달아 생긴 일이라 하였다. 자단향이라고 부르는 것이 목향, 백국이라 불리는 향나무라고 정의하였는데 백국은 측백나무를 말한다. 일본의 『화한삼재도회』에서도 측백나무 종류를 백단이라 정의하는 등 의미에 혼동이 있었다.

조선의 자단에 대한 설명은 일본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약재의 원료가 되는 동식물의 명칭을 바로잡는 일과 품질 관리에 관심을 가졌다. 왜관을 통해 조선의 약재를 조사하고 조선의 동식물을 기록하여 『약재질정기사(藥材質定記事)』를 작성하였다. 조사관은 조선에서 보내온 자단의 명칭과 물건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紫檀香辨證說」 我東公私祭享. 但用俗所稱木香. 或稱紫檀香. 未知防自何時. 詳攷木香則即柏栴. 俗所謂香木. 柏栴雖有香. 非檀香. 而強名紫檀香者. 陽平君許浚《醫鑑》中. 湯液木部. 悞注紫檀之致也. 按李時珍《本草綱目》檀香下注. 則自可明矣. 以柏栴爲檀之悞. 又有一證. 《和漢三才圖會》柏. 栴. 側柏. 俗云白檀. 亦一誤也.

‘이 명칭을 적어 보내어 그 물건을 들여와 상세히 물어본 결과, 이 나무는 100년 또는 200년도 자라는데 나무줄기 가운데 부분의 보라색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단이라고 합니다. 조선에도 있지만 아주 먼 곳에서 나는 산물이어서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 및 그 외에 그 방면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똑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나무와 잎이 비슷해서 전나무도 보여주고 “이것은 자단이 아닌가”라고 물어봤더니 자단이 아니라



<그림 1> 『약재질정기사』 「동식물도록」 자단  
자료: 일본 동경대학교 사료편찬소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나무는 잎이 억세고 자단은 잎이 부드럽다고 해서 그대로 조사해본 결과, 그쪽에서 들여온 자단은 잎이 부드럽고 전나무는 잎이 억했습니다.’<sup>11</sup>

조선의 자단은 나무줄기의 심재가 자색으로, 그 부분이 점점 커져 자단이라 불렀다. 조선에도 있지만 아주 먼 곳에서 난다고 한 내용은 이국의 자단과 조선의 자단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를 거듭하며 이듬해의 기록으로는 일본의 전나무(ビヤクシン)와 향나무(イブキ)에 대하여 다시 기록하였다.<sup>12</sup> 두 나무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자단의 일종으로, 각각 진송(眞松)과 노송(老松)이라 하였다.<sup>13</sup> 함께 수록된 그림을 살펴보면 뾰족하고 가는 잎이 모여 있고 굽은 형태의 나뭇가지가 묘사되었으며, 자단이라는 명칭이 적혀있다.(그림 1)<sup>14</sup> 이는 삼나무, 전나무와 같은 나무의 특징과 닮아 『임원경제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잎이 가느다란 침엽의 상록교목을 자단이라 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보고의 마지막에 ‘귀천을 불문하고 초목금수를 보여주고 모두 똑같이 대답하여 알게 된 것을 작성했다’고 덧붙여, 당시 자단에 대한 조선의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11 『藥材質定記事』 卷1, 享保 6年(1721) 10月 20日. 右之文字書付遣 其品取寄申委細相尋候處, 此樹百年も二百年も罷成候得 樹之心之紫色段 大成 是を紫檀と申, 朝鮮も在之候得共, 甚遠方之土産 稀成物 御座候由付, 醫師其外ヶ様之筋存候者も相尋候處, 申分相違無之候, 尤日本之びやくしん 相似候葉故, びやくしんをも相見せ, 是紫檀無之哉と相尋候處, 紫檀 無之別物 候, びやくしん 葉こわく紫檀 葉やわらか 御座候と之儀 付, 其通吟味仕候所, 彼方方取寄候 紫檀 葉やわらか 有之びやくしん 葉こわく御座候, 則生 見申候時之形色繪圖仕枝葉相添差上之候.

12 ‘비야쿠신’은 현재 일본에서 향나무로 사용되는 말로 참고한 국역에는 잣꼭지나무로 번역하고 있으나, 문헌에서 전나무를 의미하고 있기에 이에 따랐다. 『藥材質定記事』 卷1, 享保 6年(1721) 5月 14日, びやしんく 檜 じなも ソツナモ.

13 『藥材質定記事』 卷2, 享保 7年(1722) 4月. ビヤクシン, 紫檀之類俗云眞松. イブキ, 紫檀之類俗云老松.

14 이미지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id/ts\\_005\\_51ill](http://db.history.go.kr/id/ts_005_51ill)).

15 『藥材質定記事』 卷2, 享保 7年(1722). 右貴州齋來草木禽獸之類, 與醫員朴僉知李主簿李參奉朴書房京人金僉知僧玄悟僧繼白眼同相確之, 外無論尊卑再三講說之説明白歸一, 而後詳知者未詳者, 一一開錄書呈以備後證之地矣.

이를 종합하면 조선에서 이르는 자단은 잎이 가는 침엽수로, 줄기의 가운데 부분이 붉거나 자줏빛을 띠는 나무이다. 조선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수종이지만 희귀하여 함부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하여 왕실에서 향목으로 취급한 것으로, 특유의 향이 있고 속살이 자주색인 나무를 자단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의 자단은 조선의 자단과 달리 열대 지역에서 산물을 수입한 것이었다. 당대의 약리학자 소공(蘇恭)은 자단을 이르러 자진단(紫眞檀)이라 하였다. 소공은 『신수본초(新修本草)』에서 ‘자진단은 맛이 짜고 약간 차며, 악독, 풍독을 치료한다. 풍독을 치료하는데 이를 갈아서 바르기도 하지만, 청목향(靑木香)에 미치지 못한다. 또 금창(金創), 지혈, 임질 치료에 사용된다. 이는 곤륜(昆崙), 반반국(盤盤國)에서 자란다. 중화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sup>16</sup> 송대 조여괄(趙如适)이 지은 지리서 『제번지(諸蕃誌)』에서는 단향의 원산지와 분류를 설명하며 자줏빛이 나는 단향을 자단이라 하였다.<sup>17</sup> 두 문헌에서 이르는 자단은 모두 열대 지방을 산지로 한다. 『신수본초』에서는 자단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 없으나, 『제번지』에 단향 중 자줏빛이 나는 것을 자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송대 향 집성서 『향보(香譜)』에서는 단향의 목피 특성을 중심으로 황단, 백단, 자단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이때 목피가 썩어 자주색인 것을 자단이라 정의하였다.<sup>18</sup> 송대 이후에는 단향의 색에 따라 붉은 목재를 자단이라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도 자단의 명칭과 정의에 대한 혼동이 나타난다. 중세 중국에서는 자단을 단목(檀木) 혹은 종려나무(櫚木)로 여겼다. 종려나무는 짙은 색과 아름다운 무늬로 가구 장인들에게 사랑받은 나무이다. 영문명 Rosewood는 색이 아닌 향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당나라 가구 장인들도 종려나무에 속하는 목재인 화려목(花櫚木, D. hainanensis)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대 약리학자 진장기(陳藏器)가 저술한 『본초습유(本草拾遺)』에 종려나무와 자단나무의 유사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종려나무는 안남(安南) 및 남해(南海) 지역에서 난다. 상이나 안석을 만드는데 쓰고, 자단나무와 비슷하면서 색이 붉고 단단한 것이 좋다’고 하였다.<sup>19</sup> 이에 대해서는 소공이 자줏빛 단목을 뜻하는 자단이라 지칭했던 것이 실은 종려나무의 옛 한자 표기인 단(檀,

16 蘇恭, 『新修本草』, 紫眞檀木, 味咸, 微寒. 主惡毒, 風毒. 俗人磨以塗風毒, 諸腫, 亦效, 然不及靑木香. 又主金創, 止血, 亦療淋用之. (謹案) 此物出昆崙盤盤國, 惟不生中華, 人間遍有之.

17 趙如适, 『諸蕃誌』, 檀香出閩婆之打網, 底勿二國, 三佛齊【今印度尼西亞】亦有之. 其樹如中國之荔枝, 其葉亦然, 土人斫而陰乾, 氣清勁而易泄, 藝之能奪衆香, 色黃者謂之黃檀, 紫色謂之紫檀, 輕而脆者謂之沙檀. 氣味大率相類, 樹之老者, 其皮薄, 其香滿, 此上品也. 次則有七八分香者, 其下者謂之點星香, 為雨滴漏者謂之破漏香, 其根謂之香頭.

18 葉廷珪, 『香譜』, 皮實而色黃者為黃檀, 皮潔而色白者為白檀, 皮腐而色紫者為紫檀.

19 陳藏器, 『本草拾遺』, 出安南及南海. 用作床几, 似紫檀而色赤, 性堅好.



Sandalwood)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가 전한다.<sup>20</sup> 중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록활엽교목으로 붉고 화려한 특성이 있는 목재를 자단 혹은 종려로 혼동하였다.

일본은 자단을 자생목으로 인식하였다. 일본은 조선에 토공으로 자단을 올렸다. 성종 2년(1471)에 일본국 월미원 삼주의 총태수(越尾遠三州摠太守)와 비전주(肥前州)의 인물이 바친 토의로 자단 50근이 있다.<sup>21</sup> 유구(琉球)에서도 본국의 토의를 보낸다는 서신과 함께 자단 1백 근을 보내어 자단이 일본의 토산품임을 알 수 있다.<sup>22</sup> 『약재질정기사』에서 일본은 자단이 조선에 있는 것인지를 궁금해하며 일본에서의 명칭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였다. 1721년 6월 15일 조사를 위해 구한 자단은 일본 약으로 중국산이 아니라고 하였다.<sup>23</sup> 다음날 조선에 가지고 가는 자단은 중국산으로 기록되어 일본의 자단은 자국의 토산과 중국에서 들이는 수입산이 모두 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sup>24</sup> 그러나 일본의 자단이 조선이나 중국에서 무엇으로 지칭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기록되지 않아, 일본에서 자단으로 인식한 나무에 대한 실마리는 모호하다. 알 수 있는 사실은 조선의 자단은 일본의 향나무속 수종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자단 또한 토산으로 인식하여, 중국과도 달랐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문헌을 통해 동아시아의 자단은 삼나무, 전나무, 소목, 단목, 종려나무, 향나무 등의 다양한 수종을 지칭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단이라는 명칭은 다양한 목재와 그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혼동이 발생하였다. 자단으로 인식한 나무는 콩과의 자단(*Pterocarpus indicus* Wild.)과 측백나무과의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L.)로 알려져 있다.<sup>25</sup> 수종의 분포 지역과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자단을 토산으로 여겼던 한국과 일본의 자단은 주로 측백나무과의 향나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향나무는 자단과 마찬가지로 붉은색과 향기가 있는 나무이다. 향나무라는 명칭이 있었음에도 향나무는 자단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20 에드워드 H. 세이퍼, 이호영 옮김, 『사마르칸트의 황금 복숭아』, 글항아리, 2021, pp.269-270.

당나라 시대의 약리학자 소공(蘇恭)은 당나라 시대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붉은 목재를 설명하는데, 거의 인도식 명칭인 ‘자색의 칸다나(candana)’ 즉 ‘자단’이라 불렀다.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 우수한 자단은 중세 중국에서는 백단이나 종려나무 부류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두 나무를 의미적으로 연결하면 ‘단(檀, Candana)’은 옛 한자로 ‘종려나무(欄木, Rosewood)’를 가리키며, 이 두 단어는 언어학적인 관련이 있다.

21 『成宗實錄』 卷13, 성종 2년(1471) 12월 12일, 日本國 越·尾·遠三州摠太守左武衛將軍源義廉, 肥前州 上松浦鴨打源永遣人, 來獻土宜. … 紫檀五十斤.

22 『成宗實錄』 卷81, 성종 8년(1477) 6월 6일, 琉球國王尙德遣內原里主等來聘. 其書曰: … 萬福萬福. 菲瑣土宜, 具如別幅, 采甄別幅: 丹木一萬斤, 臘子五千斤, 胡椒千斤, 丁香三百斤, 香二百斤, 紫檀百斤, 檀香百斤, 木香百斤, ….

23 『藥材質定記事』 卷1, 享保 6年(1721) 6월 15日, 一紫檀, 一野茨菰. 右和藥 御座候, 則今度差上候, 尤此分 唐藥 無御座候.

24 『藥材質定記事』 卷4, 享保 6年(1721) 6월 16日, 一紫檀, 唐.

25 한약자원연구센터, 본초감별도감 자단항, <https://oasis.kiom.re.kr/herblib/hminfo/kmdmt/kmdmtDetail.do> (2023.11.01검색)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자단은 수입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었다. 다른 수종의 나무임에도 자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자단이 고급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교역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자단을 들이며 공과에 속한 자단을 사용하였다. 조선과 중국에서 자단을 쉽게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양국은 이를 실견하고 비교할 만한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문헌과 구전 기록을 통해 자단에 대한 정보가 전해지며 각국에서 같은 명칭을 두고 서로 다른 재료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단으로 인식된 나무의 공통적인 특성은 색과 향이다. 자단이 사용된 이유는 목재가 지닌 향과 아름다운 자색을 가까이 두고 감상하고자 함이다.

목재에서 나는 은은한 자연의 향기는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쾌한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중에도 특유의 향이 있는 나무는 잘게 썰거나 가루 형태로 가공하여 향으로 제조하였다. 과거에는 향과 약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기에 목재가 가진 약성을 활용해 약으로 쓰기도 하였다. 자단으로 인식된 나무는 대개 향나무속으로 특유의 향이 있는 나무이다. 조선의 자단은 향목에 속했으며, 중국은 단향의 하나로 속살이 자주색인 것을 자단이라 하였다. 향은 불쾌한 냄새를 가리기 위하거나 신체에 향기가 났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피어오르는 연기와 향기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사용자가 향취를 즐길 수 있었다. 향을 피워 신체와 옷에 향기를 입히는 방법도 있었으며, 향을 소지하거나 향목으로 제작한 공예품을 소지하여 향을 피우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고자 하였다.

이름과 같이 자단은 자줏빛의 붉은색을 띠는 나무이다. 채색을 위한 도료를 별도로 바르지 않아도 목재가 지닌 본연의 색이 선명하다. 원목의 자주색은 장식성이 뛰어나 심미적인 느낌을 준다. 일반적인 목재는 대개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자단의 색은 특별하였다. 자주색의 나무는 흔하지 않기에 자단으로 인식하는 주요 특성이다. 목재의 색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모자이크 기법처럼 화면을 구성하거나, 옷칠과 같은 도료를 발라 재료의 색이 혼합되어 보이도록 사용하였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자단의 색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색을 내는 재료와 함께 사용하여 아름다운 물품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전하는 공예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단목은 주로 동남아시아 수종으로, 목질이 치밀하고 단단한 나무이다. 목재의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으나, 나무가 무르지 않고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뒤틀림이 적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목재에 비해 수축과 이완이 적기에 결구의 틀어짐이 덜하고, 흠을 파 재료를 상감하여도 고정력이 좋아 상감재가 탈락할 염려가 적다. 치밀한 목질은 나무의 섬유질이 튀지 않아 세밀한 선으로 파내고 섬세한 조각을 새기기에 용이하다. 자단 공예품은 다른 재료를 상감하거나 사실적인 조각을 새긴 것이 주로 제작되어 단단한 목재 특성을 활용한 예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재의 결이 곧고 부드러기 때문에 신체가 직접 닿거나 손에 쥐고 사용하는 물건을 제작하기에도 적합하다. 비록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밀하게 가공하여도 쉽게 상하지 않고 사용자가 들었을 때의 적당한 무게감으로 안정감이 있었을 것이다.

## 3. 동아시아 자단의 산지와 용도

### 3.1. 산지와 교역

국내의 문헌에서 자단의 산지와 교역에 관한 기록은 모두 조선시대에 나타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물품으로 생각하였다. 중국 자단의 산지는 당대 기록이 있고 열대기후의 이국의 산물이었다. 실제 공예품에 사용하였던 목재의 수종도 열대지방에서 자라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에서 사용한 자단은 산출지가 다양하여, 재료의 원산지와 공급, 소비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산지와 교역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왕실 기록을 보면, 조선에서는 자단을 토산품으로 인식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자단을 공물로 올리는 지역은 총 10곳으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이다. 경기도의 토공으로 항목은 세부항목으로 백단향, 자단향, 역목이 기록되어 자단이 항목의 하나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경기도의 광주목, 충청도의 충주목, 경상도의 안동과 영해, 강원도의 강릉과 삼척, 원주에서 올렸다. 해당 지역들은 주로 현재의 중부지방으로, 자단은 덩치 않은 기후에서 자라났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주로 강원도의 자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에서도 자단을 공물로 바쳤는데, 격년으로 향나무를 베는 바람에 정조 18년(1794)에는 그 군락이 등성해질 정도였다고 한다.<sup>27</sup> 자단향을 올려보내는 일은 강원감사의 일이었으며, 울릉도의 자단을 각별히 가려서 올려 보내라 한 기록은 울릉도에서 자라는 자단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여겼음을 말해준다.<sup>28</sup>

조선은 외교 선물로도 자단이 유입되었다. 중국 명과 일본의 축전(筑前国), 미작(美作国), 작주(作州), 월미원(越前国·尾張国·遠江国), 유구(琉球国) 등이 기록으로 전한다. 명의 자단은 사신이 진상한 것으로, 중국에서 가져온 자단향을 바쳤다.<sup>29</sup> 일본은 세종 즉위년에 각 지역에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중 축전에서 자단 1백 본을 진상하였다.<sup>30</sup> 세종 5년에는 미작의 전 자사가 보낸 선물로 자단 1본이 기록되었다.<sup>31</sup> 외교를 통해 들어오는 자단은 조선의 왕에게 진상하는 품목 중 하나였다. 중종 20년에는 일본에서 교역을 요구하며 들여온 물품 중 자단향은 조선에 있으니 사들이는 것을 불허하였다.<sup>32</sup> 자단은 이미 조선에서 나는 것으로 교역을 통해 외국의 자단을 수입하지 않았다.

26 『世宗實錄地理志』, 京畿. … 厥貢, … 香木, 【白紫檀櫟木.】

27 『正祖實錄』 卷40, 정조 18년(1794) 6월 3일, 其上又有香木亭, 故斫取香木, 而以間年斫取之故, 漸就稀少.

28 『承政院日記』, 정조 21년(1797) 7월 18일, 以江原監司徐有防狀啓, 鬱陵島紫檀香, 各別擇取上送事, 傳于李晚秀曰, 雖因藥用, 年前有本司知委, 而年年多數輸致, 必有民邑之弊, 此後十立內外, 具狀啓上送事, 令廟堂行會.

29 『世祖實錄』 卷47, 세종 14년(1468) 7월 8일, … 分贈于姜玉, 金輔. 玉曰, 既賜京外家舍, 及奴婢土田, 又餽遺稠疊, 殿下厚恩, 報答無由. 乃以大紅織金蟒龍膝襪一匹, 鸚哥綠界地繡枝寶相花一匹, 白倭絹一匹, 白細三稜綿布二匹, 黑研香一罐, 金珀一串, 紫檀香一串進上, 命以黑細麻布七十四回贈.

30 『世宗實錄』 卷1, 세종 1년(1418) 10월 29일, 日本國 … 關西道 筑前州 石城官府平滿景遣人獻香三十斤, 藤五百本, 胡椒, 丁香, 檳榔各二斤, 紫檀百本, 賜絲布百五十匹.

31 『世宗實錄』 卷22, 세종 5년(1423) 5월 25일, 作州前刺史平常嘉使人來獻疏黃二千觔, 丹木五百觔, 藿香二十觔, 甘草, 川芎香, 白芷各十觔, 蘇香油二觔, 光明朱一觔, 犀角, 紫檀各一本, 回賜正布一百四十四匹, 絲紬六十六匹.

32 『中宗實錄』 卷55, 중종 20년(1525) 8월 19일, 日本使持來 … 紫檀香一百五十斤則以本國所產, 故全不買.

조선과 달리 중국의 자단은 먼 이국에서 수입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사용된 자단은 소엽자단(小叶紫檀, *Pterocarpus santalinus*)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엽자단의 경우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서 가격이 극도로 높았다. 그로 인해 자단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나무를 대체품으로 사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인도자단(*Indian Pterocarpus*), 대엽자단(大葉紫檀, *Pterocarpus Macrocarpa*), 노씨흑황단(盧氏黑黃檀, *Dalbergia louvelii*)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33</sup> 이는 동아시아의 기후에서 자생하기 어려운 열대식물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목재이다.

중국의 문헌에 나타난 자단의 산지는 반반국(盤盤國), 사파(闍婆, 자바), 저물(底勿, 티모르), 삼불제(三佛齊, 스리비자야), 교지(交趾) 등이 있다. 『신수본초』의 자단은 곤륜과 반반국에서 나는 것으로 중화에는 없는 것이라 하였다. 『제번지』에서는 ‘단향은 사파의 타강(打綱), 저물 두 나라에서 나는데, 삼불제에도 있다’고 설명한다.<sup>34</sup> 『단연록』에서는 자단이 교지에서 나는 것이라 하였다. 반반국은 말레이반도에 자리했으며, 사파는 자바를 음역한 것으로 인도네시아에 있었고 삼불제는 스리비자야로 지금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있었다. 교지는 지금의 베트남 지역으로, 모두 지금의 동남아시아 지역이다.

『본초강목』의 내용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시진은 소송의 의견을 인용하여 ‘단향(檀香)은 몇 종이 있는데, 황색, 백색, 자색으로 다르고, 지금 사람들은 두루 활용하고 있다. 강회(江淮)와 하삭(河朔) 지역에서 나는 단목이 이 종류인데, 향이 나지 않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인용하면서는 ‘단향은 광둥(廣東)과 운남(雲南) 및 점성(占城), 진랍(眞臘), 조와(爪哇), 발니(渤泥), 섬라(暹羅), 삼불제, 회회(回回) 지역의 국가에서 나고, 지금은 영남(嶺南)의 여러 지역에도 있다’고 하였다.<sup>35</sup> 소송이 말한 강회와 하삭 지역은 중국에 위치한 지역이다. 지역의 위치와 기후는 이국(異國)의 자단이 자생할 수 없는 곳이며, 나무에 향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여 붉은색을 띠는 나무를 자단으로 오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명일통지』에서는 중국의 지명과 이국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진랍, 조와, 발니, 섬라, 삼불제는 동남아시아의 옛 국가로, 실제 중국에서 자단을 수입하던 국가였을 것이다. 광둥과 운남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동남아시아만큼 덥고 습한 기후의 지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당시 줄기가 자줏빛의 붉은색을 띠고 향이 있으며 잎이 넓은 상록교목을 자단으로 취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광둥과 운남에서도 이국의 자단과 비슷한 나무가 자라나 이를 자단으로 여겼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3 逸人, 『紫檀』, 中國木材, 2005, pp.10-11.

34 趙如适, 『諸蕃志』 檀香出闍婆之打綱, 底勿二國, 三佛齊【今印度尼西亞】亦有之.

35 李時珍, 『本草綱目』, 1596, 木之一 香木類三十五種. 檀香. 頌曰, 檀香有數種, 黃·白·紫之異, 今人盛用之. 江淮·河朔所生檀木, 卽其類, 但不香爾. 時珍曰, 按《大明一統志》云, 檀香出廣東·雲南, 及占城·眞臘·爪哇·渤泥·暹羅·三佛齊·回回等國, 今嶺南諸地亦皆有之.

일본의 자단은 토산으로 자국 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 수입으로 얻는 자단이 있었다. 『송사(宋史)』의 기록으로 희녕 5년(1072)에 일본의 승려 성심(誠尋)이라는 자가 국청사(國淸寺)에 머물기를 청하여 조정에서 궁성으로 올려보내게 하였다. 성심이 바친 물건으로는 향로와 오항 등이 있는데 자단이 포함된다.<sup>36</sup> 비록 자단의 출처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연이어 토산물을 조공하였다는 후록으로 송나라에 바친 일본의 자단이 토산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세종 5년(1423)에는 규슈(九州)에서 부의품으로 토산물을 보내며 자단을 함께 보냈다.<sup>37</sup> 성종대 일본 월미원과 미작의 인물이 보낸 자단과 유구의 자단은 토의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도 자단은 토산품으로, 일본에서 나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유구는 토산인 자단과 남만(南蠻)에서 구해오겠다고 하는 자단이 있다. 자국의 토산으로 자단을 조선에 바쳤던 유구는 16년 뒤인 성종 24년(1493)에 조선에 도움을 요청하며 은사를 받게 된다면 사선을 남만에 보내 자단과 화리(花梨)를 구할 것이라 하였다.<sup>38</sup> 유구에는 쓸만한 좋은 재목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는데, 당시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목재가 부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유구에서 생산되던 자단이 목재로 쓸 만큼 좋은 나무가 못되어 외국의 자단을 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약재질정기사』에서는 일본과 조선의 자단이 달라, 조선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견본을 구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자단과 목재의 수종에 대해서는 실마리가 부족하나, 앞서 월미원과 유구에서 토의로 바쳤다는 자단을 들어 일본의 자단은 일본 내에서 자생하던 나무로 생각된다. 토산인 자단 외에 외국에서도 자단을 구하고자 하였다. 현재 알려진 일본의 자단은 실제 황단(黃檀, *Dalbergia hupeana*)으로, 상록활엽교목이다.<sup>39</sup> 황단은 자단으로 알려진 수종들과는 다른 나무이나, 넓은 잎과 줄기의 짙은 색으로 자단으로 혼동한 것이다.

자단의 산지에 대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별로 자단으로 인식하던 나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헌에 나타난 자단의 산지를 정리한 것은 <표 1>과 같다.

36 『宋史』 卷491, 「列傳」 第250 外國. 熙寧5年, 有僧誠尋至台州, 止天台國淸寺, 願留. 州以聞, 詔使赴闕. 誠尋獻銀香爐, 木梃子·白琉璃·五香·水精·紫檀·琥珀所飾念珠及青色織物綾. 神宗以其遠人而有戒業, 處之開寶寺, 盡賜同來僧紫方袍. 是後連貢方物, 而來者皆僧也.

37 『世宗實錄』 卷22, 세종 5년(1423) 10월 15일, 承聞, 去歲太上皇厭世, 是貴國之大故也 … 雖不足爲賻贈, 聊表追悼之萬一爾… 紫檀五十斤 ….

38 『成宗實錄』 卷279, 성종 24년(1493) 6월 6일, 琉球國王尙圓遣梵慶來聘. 其書契曰. 琉球國王尙圓拜覆朝鮮國王殿下. … 然則重欲安藏殿之福基, 蓋陋邦, 乏良材之用, 宥願賜貴國尤物, 以造創焉, 故遣使船者也. 縣布若干匹, 白苧布一千匹, 虎皮豹皮二百張, 蒙此恩賜, 遣使船於南蠻, 以紫檀花梨爲棟梁, 以鉛瓦爲苔蓋者也.

39 經濟産業省製造産業局日用品室, 『仏壇産業の現状と今後のあり方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平成23年5月, しかし, 「グラナディオ」 「パープル」 「ピンガ」 「パーロッサ」は, 「Dalbergia (マメ科ツルサイカチ属)」ではなく, 中国国家基準で「黄檀」(日本でいう紫檀)に定義されていない, p.23.

<표 1> 동아시아 문헌의 자단 산지

| 분류 | 문헌         | 시기                  | 자단 산지                                      | 내용 |
|----|------------|---------------------|--------------------------------------------|----|
| 한국 | 『세종실록 지리지』 | 조선 전기               | 충청 충주목 단양군                                 | 약재 |
|    |            |                     | 충청 충주목 청풍군                                 |    |
|    |            |                     | 충청 충주목 제천현                                 |    |
|    |            |                     | 충청 충주목 영춘현                                 |    |
|    |            |                     | 경기 광주목 지평현                                 | 토공 |
|    |            |                     | 경상 안동 대도호부 영해                              | 토공 |
|    |            |                     | 강원 강릉 대도호부 정선군                             |    |
|    |            |                     | 강원 강릉 대도호부 평창군                             |    |
|    |            |                     | 강원 원주목 횡성현                                 |    |
|    |            |                     | 강원도 삼척 도호부                                 |    |
|    | 『세종실록』     | 세종 원년(1418) 10월 29일 | 일본 축전                                      | 토공 |
|    |            | 세종 5년(1423) 5월 25일  | 일본 미작                                      |    |
|    |            | 세종 5년(1423) 10월 15일 | 일본 규슈                                      |    |
|    | 『세조실록』     | 세조 14년(1468) 7월 8일  | 명                                          | 진상 |
|    | 『성종실록』     | 성종 2년(1471) 12월 12일 | 일본 월미원                                     | 토공 |
|    |            | 성종 8년(1477) 6월 6일   | 유구                                         |    |
|    |            | 성종 24년(1493년) 6월 6일 | 남만                                         | 교역 |
|    | 『중종실록』     | 중종 20년(1525) 8월 19일 | 일본                                         | 교역 |
|    | 『정조실록』     | 정조 18년(1794) 6월 3일  | 강원 울릉도                                     | 진상 |
|    | 『비변사등록』    | 정조 21년(1797) 7월 18일 | 강원 울릉도                                     | 공납 |
|    |            | 순조 22년(1822) 11월 3일 | 강원 삼척                                      |    |
|    |            | 철종 3년(1852) 7월 14일  | 강릉 등 5개 읍                                  |    |
|    |            | 철종 5년(1854) 9월 10일  | 강원 울릉도                                     |    |
|    | 『승정원일기』    | 순조 4년(1804) 10월 23일 | 강원도                                        | 공납 |
|    |            | 순조 8년(1808) 10월 5일  | 강원도                                        |    |
|    | 『청장관전서』    | 1795(『단연록』인용)       | 교지                                         | 산출 |
| 중국 | 『신수분초』     | 659                 | 곤륜, 반반국                                    | 산출 |
|    | 『제번지』      | 1224~1225           | 사파, 저물, 삼불제                                | 산출 |
|    | 『단연록』      | 1548                | 교지                                         | 산출 |
|    | 『본초강목』     | 1578                | 광둥, 운남, 점성, 진랍, 조와, 발니, 섬라, 삼불제, 회회, 중국 영남 | 산출 |
| 일본 | 『약재질정기사』   | 1721~1722           | 조선                                         | 수종 |

## 3.2. 자단의 쓰임

### 3.2.1. 향재와 약재

예부터 좋은 향을 얻기 위하여, 좋은 향을 가진 식물을 건조하여 보관하였다. 건조된 식물을 가 공하고 불을 붙여 피어오르는 연기로 후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를 즐겼다. 향의 연기를 하늘 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인식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올리는 의례에 사용하였다. 고대에는 향재와 약재를 크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향은 보편적으로 의례에 사용하거나 향취를 즐 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식물이 지닌 약성을 활용해 약으로도 쓰였다. 한의학 분야에서 자단은 자 진단(紫眞檀)·자단향(紫檀香)이라고 하며, 자단목의 목질부를 말린 것을 말한다. 이 맛은 맵고 성 질은 따뜻하며, 간경(肝經)에 작용한다. 부기를 가라앉히고 출혈과 통증을 멎게 하는 성질이 있 다. 자단은 달여 먹거나 가루내어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sup>40</sup>

한반도 최초의 분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타난다.<sup>41</sup> 건복 29 년(612, 진평왕 34년)에 외적들이 신라를 핍박해오자, 김유신은 홀로 보검을 들고 열박산(咽薄 山)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향불을 피우고 보검에 신령이 깃들기를 기원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sup>42</sup>

기록을 통해 당시의 향은 불교 의례뿐 아니라 하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과의 교역 물품을 기록한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에 따르면 향약류로 침향, 육 계, 청목향, 사향, 훈육향(薰陸香), 정향, 감송향(甘松香), 용뇌향 등이 나타나며, 이는 서역과 동 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다.<sup>43</sup>

조선은 자단을 향목으로 보았다. 자단향에 대한 내용은 왕실기록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 實錄)』과 『승정원일기』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세종 5년(1423)에 규슈에서 부의로 자단을 보낸 기록이 있고, 자단향이 공양물로 사용된 기록도 전한다. 성종 17년(1486)에 ‘정인사(正因 寺)의 공불(供佛)하는 백미(白米)를 한 달에 9두(斗)로 더하고 자단향(紫檀香)을 20근으로 하 라’는 내용이다.<sup>44</sup> 자단향은 왕실에서 보내는 부의이자 공양하는 품목으로 위상이 높았다.

자단향이 왕실의례에 사용된 최초의 기록은 광해 2년(1610)에 나타난다. 교서관이 제사 의식을 엄히 하기를 청하며, 향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건의한 것이다. ‘어휘를 축책에 써넣고 자단향을 향 합에 담아 고운 형겅으로 싸서 향과 축을 하나로 만들고, 봉한 머리 위에 또 주상의 날인을 하였으 니, 이보다 더 공경하고 삼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며 자단향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 다.<sup>45</sup> 자단향을 사용하여 예를 다하는 것은 분향과 함께 향탕(香湯)을 우려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40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정담, 2010.

41 金富侗,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四於時, 梁遣使賜衣着·香物, 君臣不知其香名與其所用, 遣人責香徧問. 墨胡子見之, 稱其名曰曰, 此焚之則香氣芬馥, 所以達誠於神聖.

42 金富弼,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一, 建福二十九年, 鄰賊轉迫, 公愈激壯心, 獨携寶劒, 入咽薄山深壑之中. 燒香告 天祈祝, 若在中嶽誓辭校勘, 仍禱, “天官垂光, 降靈於寶劒.” 三日夜, 虛·角二星, 光芒赫然下垂, 劒若動搖然.

43 이선미, 김주덕, 「통일신라기 천연향(天然香)의 종류와 향(香)생활에 대한 고찰」, 『한국화장품미용학회』 7-1, 2017, p.3.

44 『成宗實錄』 卷198, 성종 17년(1486) 12월 14일, 傳曰: 正因寺供佛白米, 一朔加九斗, 紫檀香二十斤.

45 『光海君日記』 卷36, 御諱, 已填於祝冊, 紫檀, 既盛於香槥, 裹以紬巾香祝爲一, 而封頭之上, 又有御押, 則敬謹之大, 宜 無過於此矣.

향탕은 향을 우려낸 물로 신주를 닦는 것이다. 향탕은 영릉향(零陵香)과 자단향을 사용해 우려내었다.<sup>46</sup> 제사를 준비하며 예와 공경을 표현하며 신주를 신성시하는 과정으로 목욕물에 향을 사용하여 의례에 사용한 것이다.

영조 7년(1731)에는 의례에 사용되는 향의 종류를 구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시민당에서 임금이 전향할 때 자단향을 준비하였으나, 임금이 친히 전향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특별하므로 침향을 봉진하도록 분부하였다.<sup>47</sup> 영조 40년(1764)의 『조선왕조실록』에도 향의 위계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나타난다. 해춘군(海春君)이 황단(皇壇)의 향으로 침향이 아닌 자단을 쓰는 일이 미안한 일이라 아뢰니, 그 이후로 친제가 아닌 섭행을 하더라도 모두 침향을 쓰도록 하였다.<sup>48</sup> 자단향은 왕실의례에 쓰이는 것으로 침향 다음의 위계를 지닌 향이었다. 이러한 향의 위계는 정조대에 이르러 정립되었다. 정조 10년(1786)의 기록에 ‘제전도 친히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는 침향을 사용하지 말고 자단향으로 대용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sup>49</sup> 침향은 친제에 사용하고, 그 외에는 자단향을 사용하도록 하여 전향자에 따라 향의 종류가 정립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섭행에 자단향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여 정례화된 내용은 『택지지(度支志)』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도 나타난다.<sup>50</sup> 『택지준절(度支準折)』에 침향은 당약재로 분류되어 그 가격은 1냥 쌀 7두, 1근은 7냥으로 고가의 수입재로 취급되었다. 반면 자단향은 1냥 절가(折價)가 3푼, 1근 4전 8푼으로 침향에 비해 가치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1</sup> 세종대에 이미 침향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물건으로 그 가치가 높았다.<sup>52</sup> 이러한 침향은 희소성과 향의 선호로 공예품의 재료보다는 분향용으로 선호되었다. 따라서 임금이 친히 제사를 지내는 친제는 침향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자단향을 사용하였다. 의례에서 침향은 최고의 지위를 지녔으며, 자단향은 그다음의 위상을 가졌다.

향은 의례의 주요 품목으로, 공경의 의미를 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4년(1636) 8월 14일에는 의전을 위해 방을 꾸미는 물품으로 향을 준비

46 『國朝喪禮補編』 卷2, 「立主奠」, 香湯 用零陵香·紫檀香.所以浴主者.[內醫院] 煎器.[工曹]

47 『承政院日記』 영조 7년(1731), 辰初一刻, 上御時敏堂, 親傳香入侍時… 命臣奉香盒以進, 上曰, 紫檀乎? 命臣曰, 然矣. 上曰, 親傳香, 事體自別, 以沈香封進事, 分付…

48 『英祖實錄』 卷103, 영조 40년(1764) 3월 17일, 海春君 栢, 以皇壇香之不用沈香, 用紫檀爲未安仰奏, 上令此後則雖攝行, 皆用沈香.

49 『正祖實錄』 卷21, 정조 10년(1786) 5월 15일, 敕曰: 禮葬時, 冊印所用, 依年前下教, 勿用金銀綾緞, 戊申壬申儀軌中, 以綾緞錄者, 代以綿紬. 祭奠, 非親祭, 勿用沈香, 代以紫檀.

50 『度支志』 外篇卷24, 「凶禮」 殯殿諸具, 奠, 香 用紫檀. 後倣此. 香室. 立主奠 香湯 用零陵香·紫檀香, 所以浴主者, 內醫院. 煎器, 工曹.; 『度支志』 外篇卷一十六, 「賓禮 下」 通信使行, 渡海別幅 舊島主弔慰, 芙蓉香五十柄, 紫檀香二塊, 畫龍大燭一雙, 畫燭一百柄, 花絲紬十疋. 出戶禮曹謄錄, 而舊編闕焉.; 『國朝喪禮補編』 卷1, 「奠」, 香 用紫檀. 後倣此. {香室}).

51 『度支準折』 十六, 「鄉藥材」.

52 『世宗實錄』 卷58, 세종 14년(1432) 10월 20일, 朱砂龍腦, 雖曰貴藥, 求之中國, 則猶可得也, 沈香則雖中國, 未易得之. 往者倭人齋沈香來者比比有之, 我國折價甚輕, 故不更齋來. 沈香不產倭邦, 乃旁求他國而來, 雖倍其價可也, 禮曹其議以啓.



하였다. 실내를 꾸미기 위한 것으로, 의향(衣香), 홍매향(紅梅香), 자단향, 침숙향(沈束香) 등을 규례대로 마련하도록 내의원에 통지하였다.<sup>53</sup>

왕실의례에 사용되는 자단향은 국내산 자단이었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는 울릉도에서 나는 자단향을 향실에서 추옹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기록이 있다.<sup>54</sup> 향실은 제사에 필요한 향축을 관장하던 기관이다. 제사에 필요한 자단향은 향실에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산 자단향을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조는 국산 자단향을 중국의 광향(藿香)과 비교하며, 근래의 광향이 유명무실하여 조선의 자단향이 낫다고 하였다.<sup>55</sup> 본래 자단향은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도 공물로 올리던 것이었으나 숙종 대부터는 주로 강원도와 울릉에서 나는 자단을 사용하였다. 울릉도의 자단향은 약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왕실에서 긴요한 물품이었다. 향의 위계가 높은 만큼 귀한 재료였으며, 민간에서는 함부로 사용하기 어려운 향이었다.

약재로 사용된 자단의 의약적 용법에 관한 기록은 의학서적에서 찾을 수 있다. 명대 『본초강목』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자단은 맛은 짜고 성질은 약간 차고 독이 없다. 악독이나 풍독에 문지르거나 발라 준다. 굵어낸 가루를 금창에 발라 주면 출혈도 멎고 통증도 멎게 한다. 임병(淋病)을 치료한다. 홍경 식초에 갈아서 갑자기 생긴 온갖 종기에 발라 준다.’ 이시진은 ‘자단은 맛이 짜고 성질이 차서 혈분(血分)에 쓰는 약이다. 그러므로 영기(營氣)를 조화롭게 하여 종독을 삭이거나 금창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56</sup> 『본초강목』에는 종기의 독 혹은 쇠붙이로 인하여 생긴 상처를 치료할 때 자단 가루를 사용하는 용법이 기록되어 있다. 같은 사례를 조선시대 의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본초강목』을 인용하여 자단향은 쇠붙이에 상한 금창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악독, 풍독, 광란으로 멍치가 아픈 것과 중악, 귀기(鬼氣)에 주로 쓰이고, 자진단이라고도 한다고 기록하였다.<sup>57</sup> 『본초정화(本草精華)』에서도 『본초강목』의 내용을 인용하여 금창에 사용된다고 기록하였다.<sup>58</sup>

53 『承政院日記』 인조 14년(1636) 8월 14일. 崔惠吉, 以接待都監言啓曰, 監軍時房排所用衣香·紅梅香·中缺紫檀香·沈束香, 依例措備事, 知委于內醫院, 則諉以缺啓下公事, 不爲舉行. 今此監軍之行, 與詔使無異, 一依前例, 措備待令事, 分付, 何如? 傳曰, 依啓.

54 『備邊司謄錄』 철종 3년(1852) 7월, 而既以民弊爲言, 限三年更許權減, 其一, 香室納紫檀香, 分定於江陵等五邑, 而上納之際, 稱量補縮, 人情冗費.; 『備邊司謄錄』 철종 5년(1854) 9월, 同日入侍時, 禮曹判書洪在喆所啓, 香室所用香木, 每年三百斤, 例自江原道進上矣.

55 『承政院日記』 정조 15년(1791) 4월 25일. 上曰, 唐材中藿香即繁種, 而近來所謂藿香, 有名無實, 反不如我國之紫檀香矣.

56 李時珍, 『本草綱目』 卷34, 「紫檀」, 鹹, 微寒, 無毒. 摩塗惡毒風毒. 別錄 刮末敷金瘡, 止血止痛. 療淋. 弘景 醋磨, 敷一切猝腫. 時珍曰: 白檀辛溫, 氣分之藥也. 故能理衛氣而調脾肺, 利胸膈. 紫檀鹹寒, 血分之藥也. 故能和營氣而消腫毒, 治金瘡.

57 許浚, 『東醫寶鑑』, 「雜病編」 卷9, 單方, 治金瘡. 急刮紫檀末付之, 止血止痛至妙. 《本草》. 『東醫寶鑑』, 「湯液編」 卷3 木部, 性溫, 味辛, 無毒. 主惡毒, 風毒, 霍亂, 心腹痛, 中惡, 鬼氣. 一名紫真檀. 《本草》我國江原道多有之. 《俗方》

58 『本草精華』 卷之下, 「木部」 香木類 紫檀香, 味鹹, 微寒, 無毒. 別: 主摩塗惡毒風毒. 弘景: 刮末傳金瘡, 止血止痛. 時珍曰: 白檀辛溫, 能理衛氣而調脾肺, 利胸膈. 紫檀鹹寒, 血分之藥也, 故能和營氣而消腫毒, 治金瘡. 新者色紅, 舊者色紫, 有蟹爪文. 揩壁上色紫者眞.

『의방합편(醫方合編)』 또한 금창의 치료법으로 자단향을 갈아서 상처 위에 붙이면 통증을 멎게 하고, 출혈을 멎게 하고, 살이 돋게 하는 일에 매우 좋다고 하였다. 자단향과 닥나무잎 가루를 금창의 상처 위에 바르는 방법도 있다.<sup>59</sup> 쇠붙이로 인하여 생긴 상처인 금창의 치료 방법은 실제로 행하였고 효과가 나타났다. 4명의 명의의 경험을 집성한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에서 이석간(李碩幹)은 파상풍에 자단향을 칼로 긁어 그 가루를 바른다고 하였다.<sup>60</sup> 자단향의 용법은 대부분 가루를 바르는 것이 소개되어 있으나, 이를 복용한 기록도 나타난다. 『증보단방신편(增補單方新編)』에서는 금창 치료에 ‘자단향을 달여서 꿀에 타서 먹거나 백단향과 황랍을 함께 달여서 먹으면 매우 신묘하다’고 하였다. 또한 치통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자단향을 상투에 꽂는 처방이 있었다.<sup>61</sup> 이와 같은 처방은 자단향의 약성보다는 향의 신성성을 이용하여 병을 유발하는 악독한 기운을 쫓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왕실에서도 자단을 약재로 사용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승정원일기』 효종 10년(1659) 5월 4일 기록에 따르면 ‘피를 멈추게 하는 약을 급히 조제하여 들이고 석회의 말엽과 피가 고갈된 것, 자단향말엽(紫檀香末葉), 괴화말루(槐花末樓), 백초(百草)의 서리와 말, 기와 분말 등 세 제조가 조제를 감독하여 연이어 들이라’ 하였다.<sup>62</sup> 이처럼 조선 왕실에서도 지혈의 용도로 자단향을 사용하였으며, 가루 형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 4년(1728)에도 자단향으로 파상풍을 치료한 사례가 나타난다. 세자의 종기로 인한 상처를 염려하며, 이광좌는 본인이 아이이던 시절 종기가 파상풍으로 진행된 상처를 옥진고(玉津膏)와 자단향으로 다스려 겨우 나은 사례를 말했다.<sup>63</sup>

자단향은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쇠붙이로 인하여 생긴 상처인 금창, 그리고 파상풍을 치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대부분 자단향을 가루로 내어 환부에 바르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때때로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였다. 파상풍 치료에 자단향을 바르는 방법은 실행되었고 효과가 있다는 기록이 다수 나타난다. 외상 외에 치통 예방법으로 자단향을 상투에 꽂는 방법도 의서에 기록되어 자단의 약성뿐만 아니라 향이 내포한 신성함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59 『醫方合編(意方合部)』 卷3, 「金瘡」, 紫檀香末付瘡上, 止痛止血生肌, 甚效. … 楮葉末 紫檀香糝之其上.

60 『四醫經驗方』, 「破傷風」, 紫檀香, 以刀刮而屑之, 塗.

61 『增補單方新編』, 齒疼 削紫丹香挿鬚, 預防不疼. 破傷風 煎紫檀香, 和蜜服. 或白丹香 黃蠟, 同煎服, 極妙.

62 『承政院日記』, 효종 10년(1659) 5월 4일, 又傳曰, 此外止血之藥, 急急劑入, 石灰末·血竭末·紫檀香末·槐花末槐花末·百草霜末·瓦粉末三提調監劑, 連屬入之.

63 『承政院日記』, 영조 4년(1728) 1월 12일, 小臣兒時, 手指有小癰, 不能謹慎, 至於破傷風. 一日之內, 大段浮高, 外傳玉津膏, 內治以紫檀香, 僅得差愈.

&lt;표 2&gt; 문헌에 나타난 자단향의 용도

| 분류 | 문헌        | 시기           | 내용                         |
|----|-----------|--------------|----------------------------|
| 향재 | 『조선왕조실록』  | 세종 5년(1423)  | 부의(賻儀)용 선물품목자단향 : 공물 및 토산품 |
|    | 『세종실록지리지』 | 단종 2년(1454)  | 자단향 : 공물 및 토산품             |
|    | 『승정원일기』   | 성종 17년(1486) | 공양물                        |
|    | 『조선왕조실록』  | 광해 2년(1610)  | 왕실 의례용 향                   |
|    | 『승정원일기』   | 영조 7년(1731)  | 친제 시 침향 봉진                 |
|    | 『국조상례보편』  | 영조 34년(1758) | 자단향 사용 명시                  |
|    | 『조선왕조실록』  | 영조 40년(1764) | 친제, 섭행 모두 침향 봉진            |
|    | 『조선왕조실록』  | 정조 10년(1786) | 친제 : 침향, 그 외 : 자단향         |
|    | 『택지지』     | 정조 12년(1788) | 자단향 사용 명시                  |
|    | 『비변사등록』   | 철종 3년(1852)  | 향실 공납                      |
|    | 『택지준절』    | 대한제국         | 침향 : 당약재(唐藥材)              |
|    | 『승정원일기』   | 인조 14년(1636) | 감군(詔使) 방 꾸밈                |
|    | 『국조오례의』   | 성종 5년(1474)  | 향탕에 향내음을 우려냄               |
|    | 『연려실기술』   | 1911년        | 자단향주(紫檀香酒)                 |
|    | 『승정원일기』   | 숙종 1년(1675)  | 자단향(紫檀香)                   |
| 약재 | 『본초강목』    | 명(1596)      | 가루 - 약독, 풍독, 금창, 임병, 종기    |
|    | 『동의보감』    | 광해군 5년(1613) | 가루 - 금창, 약독, 풍독, 객란, 귀기    |
|    | 『본초정화』    | 조선           | 가루 - 금창                    |
|    | 『의방합편』    | 조선           | 가루 - 금창                    |
|    | 『증보단방신편』  | 1913         | 금창 - 달여 먹음, 치통 - 상투에 꽂음    |
|    | 『사의경험방』   | 17세기         | 가루 - 금창(파상풍)               |
|    | 『승정원일기』   | 효종 10년(1659) | 가루 - 지혈                    |
|    | 『승정원일기』   | 영조 4년(1728)  | 파상풍                        |

### 3.2.2. 공예의 재료

자단은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였다. 자단목이 지닌 색과 결은 물건을 만들기 적합하며 목재의 향을 즐길 수도 있다. 자단의 쓰임은 부채와 같은 소품부터 난간, 마루와 같은 건축재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헌을 통해 자단의 용도를 살펴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자단은 왕이 신하에게 내린 하사품과 품계에 따른 금제로 기록되어 있다. 헌덕왕은 나이가 든 노신에게 궤장을 하사하며, 금으로 장식한 자단지팡이(金飾紫檀杖)를 내렸다.<sup>64</sup> 신라는 품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제한한 금제가 있었다. 자단에 대한 금제로는 상(床), 수레, 안장틀(鞍橋)이 있다. 상은 오두품 이상의 귀족들도 자단을 사용하여 꾸밀 수 있었지만, 안장틀과 수레의 자재는 진골도 자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성골만이 쓸 수 있었다.

64 金富軾,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헌덕왕(憲德王) 11년(819), 春正月, 以伊滄眞元年七十, 賜几杖. 以伊滄憲貞病不能行, 年未七十, 賜金飾紫檀杖.

자단은 왕실 인물과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고급 재료였다. 수레와 안장들의 자단은 자재로, 상의 자단은 꾸미는 용도로 언급되어 원목을 가공하여 바탕 자재와 장식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65</sup>

자단에 대한 기록은 조선대에 다시 등장한다. 인조 12년(1634)에 천사(天使)에게 주는 예물로 ‘자단양감화금선(紫檀鑲嵌花金扇)’이 있다.<sup>66</sup> 글자가 몇 자 누락되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하루 전날 이미 천사가 준비한 예단을 받았다는 내용과 금선이 기록된 날과 같은 날 천사가 예물을 거절하다가 설득 끝에 받은 일이 있다. 앞뒤 내용의 맥락을 통해 중국의 사신에게 주기 위한 예물 중 하나로 부채를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금선은 금색으로 장식한 종이로 제작한 접선이다. 접선은 주로 변죽에 옥이나 무늬가 아름다운 나무를 붙여 장식하였는데, 기록된 부채의 명칭으로 보아 변죽에 자단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산설림초고(五山說林草藁)』에서는 자단을 건축재로 사용한 기록이 나타난다. 성종 대 자단으로 마루를 깐 자가 있어 치죄하였다는 내용이다.<sup>67</sup> 자단으로 마루를 깔았다는 자는 승정원에 적을 두고 있으며 왕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다. 조선은 신라와 같이 자단에 대한 금제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자단은 왕실의례에 사용되는 향이거나 왕이 신하에게 내렸던 고급품으로, 민간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귀한 재료였다. 『졸은유고(拙隱遺稿)』에는 자단으로 주사위를 만들어 점을 치는 방법을 설명한 ‘자단대사환법(紫檀代蓍丸法)’이 기록되었다.<sup>68</sup> 자단으로 주사위를 만든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신비로운 향목이면서 적당한 무게감을 지닌 목재로 주사위를 만들어 점을 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조 3년(1625)에 명의 모문룡(毛文龍)은 ‘은양자단서상(銀鑲紫檀書箱)’을 예물로 가져왔다.<sup>69</sup> 서상은 책을 담는 상자로서, 은으로 장식한 자단으로 만든 것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유물이 전하는 것은 없으나, 유사한 것으로 자단 바탕에 은을 장식한 서상이 중국에 전하고 있다.(그림 2)<sup>70</sup> 조선의 학자 서유구는 중국의 문헌인 『준생팔전(遵生八牋)』과 『동천향록(洞天清錄)』을 인용하여 공예품의 재료로 자단을 사용했다고 기록하였다. 단선의 자루, 향반, 향궐, 벼루갑,

65 金富軾, 『三國史記』 卷33, 「雜志」, 屋舍. 六頭品. … 簾緣禁闌繡綾, 屏風禁繡, 床不得飾玳瑁·紫檀·沉香·黃楊又禁錦薦. … 車騎, 眞骨. 車林校不用紫檀·沉校勘香. … 眞骨. 鞍橋禁紫檀·沉香.

66 『承政院日記』 인조 12년(1634) 6월 24일, 天使 … 紫檀鑲嵌花金扇八柄, ….

67 金斗鍾, 『五山說林草藁』, 成廟時. 外舅有職居銀臺者. 以紫檀木構小軒. 上聞之. 面問曰. 聞爾檀香作室. 有諸. 對曰未也. 上即命侍臣及中人往觀之. 奏曰. 果以紫檀爲之. 上即移御景福宮. 命誅其外舅. 已而還宮曰. 余疾瘳矣. 時大妃尚在. 上恐請寬之. 故托疾而移御. 仍命誅之. 既刑之便復還也. 說者以爲上之此舉. 斷則斷矣. 何如漢文之待薄昭也. 後世必有議者.

68 『拙隱遺稿』, 拙隱先生遺稿卷之二, 紫檀代蓍丸法.

69 『承政院日記』 인조 3년(1625) 2월 3일, 謹具朱漆篋絲茶盒一對, 銀鑲紫檀書箱一架, 鳳椀二十箇, 冰盤二箇, 鑲是茶鍾二十箇, 青花酒鍾四十箇, 奉申敬, 侍生毛文龍頓首.

70 이미지출처 : Beijing National Palace Museum(<https://www.dpm.org.cn/collection/gear/229334>).

도서갑 등의 물건에 자단을 사용하였다.<sup>71</sup> 그중 도서갑은 서상과 유사한 용도의 물품이다. 자단은 향이 있기 때문에 종이에 향이 배어들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자단으로 각종 가구와 소품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비교적 많은 기록과 다양한 유물이 전하고 있다. 자단목의 특성인 색과 향의 선호와 함께 이국에서 들어오는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류층의 취향도 반영되었다.



<그림 2> <紫檀木雕龙戏珠纹箱>, 명대, 베이징고궁박물관 소장

중국에서 자단 공예품에 대한 이른 기록은 『대당육전(大唐六典)』의 「소부군기감(少府軍器監)」에 적힌 ‘목화자단척(木畫紫檀尺)’이다.<sup>72</sup> 이는 중상서에서 세시에 올리기 위해 준비했던 물품이다. 목화는 자단과 같이 이국에서 들어오는 재료와 보석을 사용하여 공예품을 장식하는 것으로, 매우 귀한 물품이었다. 명대와 청대에는 자단으로 가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광지역(廣志釋)』에 의하면 자단으로 상과 침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sup>73</sup> 명의 송정황제는 사치를 경계하며 기구에 자단 사용을 금하였다.<sup>74</sup> 자단은 수입되는 만큼 값비싼 물건으로, 송정 이전부터 자단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사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황제가 직접 기구에 자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 것이다.

71 徐有渠, 『林園經濟志』, 「怡雲志」, 團扇, 紙糊如此式樣亦佳, 但得竹根, 紫檀妙柄為美. 《遵生八牋》; 香盤, 紫檀, 烏木為盤, 以玉為心, 用以插香, 《洞天香錄》; 香几. 今吳中製有朱色小几, 去倭差小, 式如香案. 更有紫檀花嵌, 有假模倣製, 有以石鑲, 或大如倭, 或小盈尺. 《遵生八牋》; 硯匣. 以豆瓣楠, 紫檀為匣, 或用花梨亦可. 《遵生八牋》; 圖書匣. 有填漆者, 有紫檀彫鏤鑲嵌玉石者, 有古人玉帶板, 燈板鑲匣面者. 《遵生八牋》

72 『大唐六典』 卷22, 「少府軍器監」, 每年二月二日, 進鏤牙尺及木畫紫檀尺.

73 王士性, 『廣志釋』, 姑蘇人聰慧好古, 亦善倣古法為之 … 蘇人以為雅者, 則四方隨而雅之, 俗者, 則隨而俗之, 其賞識品第本精, 故物莫能違. 又如齋頭清玩, 几案, 牀榻, 近皆以紫檀, 花梨為尚, 尚古樸不尚雕鏤, 即物有雕鏤, 亦皆商, 周, 秦, 漢之式, 海內僻遠皆效尤之, 此亦嘉, 隆, 萬三朝為盛.

74 『明實錄』, 「崇禎長編」, 諭禮部. 邇來兵革頻仍. 災祲疊見. 內外大小臣工士庶等. 全無省惕. 奢侈相高. 僭越王章. 暴殄天物. 朕甚惡之. 向屢經嚴飭. 未見遵行. 崇儉去奢. 宜自朕始. 朕於冬至正旦壽節端陽中秋. 及遇諸大典. 陞殿行禮. 方許作樂. 其餘皆免. 至浣衣減膳. 已有諭旨. 今用銅錫木器. 以仿古風. 其金銀各器. 關係典禮者. 留用. 餘盡貯庫. 以備賞賚. 內外文武諸臣. 俱宜省約. 專力辦賊. 如有仍前奢靡宴樂. 淫比行私. 又拜謁餽遺. 官箴罔顧者. 許緝事衙門參來逮治. 其官紳擅用黃藍紬蓋. 士子擅用紅紫衣履. 併青絹蓋者. 庶民男女僭用錦繡紵綺. 及金玉珠翠衣飾者. 俱以違制論. 衣袖不許過一尺五寸. 器具不許用螺紫檀花梨等物. 及鑄造金銀盃盤. 在外撫按提學官大張榜示. 嚴加禁約. 違者參處. 娼優胥隸. 加等究治.

그럼에도 자단의 선호는 지속되어 자단목으로 공예품을 제작하는 일은 청대까지 이어졌다.

조선의 사신들이 연행 후 남긴 기록에도 청나라의 귀한 물건에 자단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75</sup> 난수(灤水)에 짓고 있던 행궁은 난간에 자단과 화리를 사용하여 만(卍)자를 조각하였다고 한다.<sup>76</sup> 건축에 사용된 자단은 기둥과 대들보에 사용되는 것보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조각을 새겨 장식하기 용이한 난간과 창호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송대에도 난간과 창호를 자단으로 조각한 기록이 남아있다.<sup>77</sup> 원대에는 마팔아국(馬八兒國)에서 자단목전(紫檀木殿)을 봉헌하였다.<sup>78</sup> 『원사(元史)』에 의하면 마팔아국에서 자단목전을 올렸는데, 『남촌輟耕錄(南村輟耕錄)』에서 설명하기를 이 자단목전이 문사전(文思殿)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였다.<sup>79</sup> 문사전은 궁의 정전 중 하나로, 이국에서 봉헌한 자단목전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단은 귀한 집에서 사용되는 재료로 공예재료이면서 건축재였다. 황실에서 자단을 사치재로 규정하고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점을 통해 중국에서도 상당히 귀한 재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는 자단으로 금강저를 만들면 좋다고 하였고, 그밖에 연꽃과 불상을 조각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sup>80,81</sup> 『불설다라니집경(佛說陀羅尼集經)』에서도 기도를 위해 금강저를 만들 때 적동이나 백단, 대추나무 중 무엇을 써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단이 제일 좋다고 하였다.<sup>82</sup> 금강저는 제석천(帝釋天)이 아수라와 싸울 때 사용하였다는 무기로, 불구(佛具)이자 수행의 도구이다. 앞의 내용과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어제화산용주사불기복게(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에서는 금강저에 대해 ‘빛깔이 자영(紫英)과 같고 금을 녹여 수없이 단련(鍛鍊)하여 만들었으며,

75 洪大容, 『湛軒書』 外集10卷, 「燕記」, 其花梨, 紫檀 … 只供貴家翫器而已.; 『薊山紀程』 第5卷, 「附錄」, 器用 … 花梨, 紫檀, 降眞, 沈香, 烏木等器. 多是貴家物.; 『燕行錄選集』, 「燕行日記」 第6卷, 一家前列各樣奇玩 … 又有紫檀筆筒, 鐵如意, 青花磁尊.

76 李德懋, 『青莊館全書』 第66卷, 「入燕記」 上, 以楠木紫檀花梨. 刻牧丹卍字.

77 江贊, 『通鑑節要』 卷33, 「南北朝」 陳紀, 其牕牖, 壁帶懸櫺, 欄檻皆以沈, 檀爲之 飾以金玉 間以珠翠 外施珠簾 內有寶牀寶帳 其服玩瑰麗 近古所未有.

78 『大唐西域記』에서는 ‘Chola’의 음역으로 ‘珠利耶’로 썼고 송대에는 『宋史』, 『諸蕃志』, 『嶺外代答』 등에서는 ‘注輦國’이라고 썼으나 ‘馬八二’라는 명칭도 있었다. 대략 9세기 초부터 남인도 지역에서 흥기하였는데 『송사』 「주련전」에서는 그 서쪽으로 天竺과 1,500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송대 초부터 중국에 조공단을 파견하였고 13세기경에는 남인도의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79 『元史』, 至元 24年(公元1287年), 使馬八兒國 … 又以私錢購紫檀木殿才並獻之; 『南村輟耕錄』, 紫檀殿大小和文思殿差不多三間, 前後軒, 東西三十五尺, 深七十二尺.

80 『大陀羅尼末法中一字心呪經』 卷1, 若欲成就金剛杵法者, 以紫檀爲金剛杵一枚 … 若欲成就金剛杵者, 取好鋌鐵, 長十六指, 打作三稜上下各作三頭, 磨以紫檀, 用塗其上 … 若以紫檀刻爲蓮花, 滿十萬箇, 於大江河入至腰際, 一一呪之, 放其水中, 依檀花數, 即得金藏 … 若欲得蓮花法成就者, 以紫檀木爲一蓮花, 三日勿食, 左手執花於像前坐 …

81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昔如來在忉利天經夏爲母說法, 王思慕, 乃請目連將巧工升天觀佛尊顏容止, 還以紫檀雕刻以像真容, 世尊下來時, 像迎佛, 即此也.

82 『佛說陀羅尼集經』 卷第八, 其金剛杵橫九指長, 若用赤銅, 若白檀作, 若棗木心, 隨一皆得, 其中紫檀最爲第一.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옥(玉)을 자른다'고 소개하고 있다.<sup>83</sup> 금강저에 자단이 사용된 이유는 빛깔이 자색이며 단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드러운 촉감과 신비로운 향이 있는 자단은 손에 들고 사용하는 물건이면서 신성한 물건인 금강저의 제작에 적합한 재료였을 것이다.

일본은 자단을 건축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유구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은사를 청하였다. 그 내용은 조선의 은혜를 받으면 남만으로 배를 보내 자단과 화리를 구할 것이며, 구한 목재로는 장전(藏殿)을 지을 때 대들보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유구는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을 위로하고자 장전을 짓고자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구하기 위해 조선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기록을 통해 일본도 자단을 건축자재의 용도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도 자단으로 공예품을 제작하였으나 문헌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고 전하는 유물로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표 3> 동아시아 문헌에 나타난 자단 공예품의 종류

| 분류 | 문헌             | 추적 제작지 | 공예품 종류               | 구체적 이름 |
|----|----------------|--------|----------------------|--------|
| 한국 | 『삼국사기』         | 신라     | 지팡이, 상, 수레, 안장틀      |        |
|    | 『승정원일기』        | 명      | 책 상자                 | 은양자단서상 |
|    | 『승정원일기』        | 조선     | 부채                   | 자단양화금선 |
|    | 『졸은유고』         | 조선     | 주사위                  |        |
|    | 『임원경제지』        | 송·명    | 부채, 향반, 향궐, 버루갑, 도서갑 |        |
|    | 『오산설림초고』       | 조선     | 건축재(마루)              |        |
|    | 『담헌서』, 『계산기정』  | 명·청    | 궁실, 의자, 탁자, 관곽       |        |
|    | 『연행일기』         | 명·청    | 필통                   |        |
|    | 『청장관전서』        | 명·청    | 난간 조각                | 난수 행궁  |
| 중국 | 『대당육전』         | 당      | 자                    | 목화자단척  |
|    | 『통감절요』         | 송      | 건축재(창호, 난간)          |        |
|    | 『대다라니말법중일자심주경』 | 송      | 금강저, 연꽃조각            |        |
|    |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 송      | 불상                   |        |
|    | 『불설다라니집경』      | 송      | 금강저                  |        |
|    | 『원사』, 『남촌철경록』  | 원      | 궁전                   | 자단(목)전 |
|    | 『광지역』          | 명      | 상, 침대                |        |
|    | 『명실록』          | 명      | 기구                   |        |
| 일본 | 『조선왕조실록』       | 유구     | 건축재(대들보)             | 유구 장전  |

83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七曰金剛, 梵語跋折羅, 謂出於金中, 色如紫英, 百鍊不消, 至堅至利 可以切玉, 世所稀有故爲寶.



## 4. 동아시아 자단의 활용과 공예 제작

### 4.1. 의례와 치료

자단은. 좋은 향기가 나는 향재로, 의례의 향과 약재로 사용되었다. 『임원경제지』에서는 섭정규(葉廷珪)의 『향보』를 인용하여 단향의 종류인 자단향과 그 특성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하였고, 이때 향을 보관하는 방법을 함께 명시하였다. “껍질이 실하면서 황색인 나무가 황단이고, 껍질이 깨끗하면서 백색인 나무가 백단이며, 껍질이 썩었으면서 자색인 나무가 자단이다. 그 나무들은 모두 단단하면서 묵직하고 맑은 향기가 나는데, 그중 백단이 특히 좋다. 단향은 종이로 밀봉해서 보관해야만 향기가 새지 않는다.”<sup>84</sup> 단향의 향내음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향기를 지속하기 위하여 향을 종이로 밀봉하는 법을 소개하였다.

왕실 의례에서 임금이 친히 제사를 지낼 때는 당약재로 분류된 수입산 향인 침향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조대에 이르러 친제가 아닌 섭행에서는 자단향 사용으로 정립하였다. 이처럼 같은 의례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른 향을 사용하는 것은 위계를 보여준다. 자단향은 침향에 비하여 낮은 위계였다. 자단향은 강원도에서 많이 난다는 기록이 있고 지리서에서도 한반도에 자생하는 향약재로 분류되었다. 이때 자단향은 중국의 공예품으로 사용되던 수종인 자단과 다른 향나무였다. 자단향은 비록 침향만큼의 위상을 갖지는 못하였으나 한반도에서 자생하여 수급이 용이하여 의례용 향으로 채택되었다.

의례에서 사용되는 향의 용법은 향을 태우는 분향법과 향탕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향용 향은 가루 형태의 편향(片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왕실에서 사용하던 향합은 높이가 낮은 원형의 향합이다. 이러한 향합에 보관할 수 있는 향의 형태로는 둥근 환향과 가루 형태의 편향이 적합하다.(그림 3)<sup>85</sup> 자단향은 목재이기에 환향으로 만드는 것은 많은 공정이 필요하였으며, 하나의 향재로 제조된 단향(單香)이었기에 단순히 가루 낸 형태인 편향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3> 향합,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84 徐有渠, 『林園經濟志』, 「怡雲志」, 檀香. 葉氏《香譜》云:“皮實而色黃者爲黃檀, 皮潔而色白者爲白檀, 皮腐而色紫者爲紫檀. 其木竝堅重清香, 而白檀尤良. 宜以紙封收則不泄氣.” [풍석문화재단, 앞의 책, p.358.]

85 이미지 출처: 국립고궁박물관(<https://www.gogung.go.kr/gogung/pgm/psgudMng/view.do?psgudSn=397895&menuNo=800065&gubunCd=&pageIndex=1&searchClCd=&searchCondition=&searchKeyword=%ED%96%A5%ED%95%A9>).



정조대에 김건서(金健瑞)가 대일 국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증정교린지』에 따르면 효종 10년(1659)에 별폭으로 부용향 50자루, 화촉(畫燭) 100자루, 화사주(花絲紬) 10필, 자단향 2괴(塊), 화룡대촉(畫龍大燭) 1쌍을 준비하였다.<sup>86</sup> 이때 선향 형태로 제조된 부용향은 자루(柄)로 수량이 표기되었고, 자단향의 경우 ‘덩어리 괴(塊)’로 언급하였다. 당시 별폭으로 준비된 자단향은 충분히 재단하지 않은 목재 덩어리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목재 덩어리의 자단향을 필요할 때마다 조각내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자단향을 나타내는 수량 표기는 뉘(立)이 있다. 정조 21년(1797) 『일성록(日省錄)』에 관동은 울릉도의 자단향을 10뉘 내외만 장계를 갖추어 보내라고 명하였다.<sup>87</sup> 뉘은 목재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두께나 너비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이러한 경우도 특별하게 가공하지 않은 목재를 일컫는 수량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례에서 사용된 자단향은 목재를 가루로 만든 편향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신주를 목욕할 때 사용하는 향탕은 영릉향과 자단향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향재는 내의원에서 진배하였다. 영릉향은 당약재로 수급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용이하였던 자단향의 수량을 늘려 영릉향을 대체한 기록도 나타난다.<sup>88</sup> 향약재로 분류되던 자단향은 한반도에 자생하여 수급이 용이하였다. 이러한 점은 의례를 자주 행했던 유교 사회에서 의례의 향으로 자단향이 채택되는 이유가 되었다.

자단은 의례용 향뿐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의료적 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자단이 약재로 사용된 것은 쇠불이로 인한 상처인 금창의 치료법으로 사용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자단을 활용하는 금창의 치료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단을 가루 내어 이를 환부에 도포하는 용법이다. 두 번째는 자단 가루를 물로 복용하는 방법이 있다. 용법은 다르지만, 모두 가루 형태의 자단향을 사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창 치료 외에 의료적 용도로 사용된 사례는 곽란의 치료와 치통의 예방법이 있다. 『구급간이방언해(救急簡易方諺解)』에서는 곽란에 자단향을 끓여 먹는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 치통의 예방법으로 자단목을 상투에 꽂는 처방이 있다. 의료적 용법의 자단은 가루 형태로 사용하거나 복용하는 방식이었다.

## 4.2. 공예 제작과 기법

자단은 자줏빛의 색상과 곧은 결, 특유의 향이 있어 공예재료로 사용되었다. 자단을 사용한 공예품은 자연스러운 자단의 색과 결을 감상할 수 있는 물건부터 진귀한 재료를 상감하거나 세밀한 조각을 가미한 것까지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특히 목재의 색과 단단한 물성을 활용한 목화기법(木畫技法)

86 『增正交隣志』 卷6, 효종 10년(1659), 芙蓉香五十柄, 畫燭一百柄, 花絲紬十疋, 紫檀香二塊, 畫龍大燭一雙.

87 『日省錄』 정조 21년(1797) 7월 18일, 此後十立內外具狀啓上送事令廟堂行會.

88 『宗廟修理都監儀軌』, 인조 14년(1636) 윤 4월 14일, 宗廟修理都監 啓曰, 今此 列聖神位奉安時, 當用 零陵紫檀, 香湯浴洗, 而以 膳 錄考之, 則 練主一位, 沐浴所用 兩香各伍兩, 自內醫院進排, 乃是規例, 而今則內局藥物所存不多, 勢難, 依膳 錄所用, 零陵香貳斤·紫檀香貳斤, 當初已爲進排, 而 廟社主肅寧殿四十五位, 浴湯所入, 太半不足, 零陵香則唐材乏絕, 尤似難得, 紫檀香亦爲從略磨鍊, 令內醫院, 加伍斤, 進排, 何如? 傳曰, 依啓.

과 목지나전(木地螺鈿)의 주재료였다. 자단 공예의 제작과 장식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예는 전하는 유물과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목화기법은 자단을 사용한 대표적인 장식이다. 목재의 바탕에 흠을 파 다른 색을 띠는 목재나 자개, 상아와 같은 진귀한 재료를 박아 넣어 장식한다. 목화에 사용되는 목재는 흑단, 자단, 황화목과 같이 무늬가 아름답거나 뚜렷한 색을 지닌 것이다. 노란색에서 갈색에 가까운 색을 띠는 일반적인 목재와 달리 자단목의 색상은 자주색으로, 색이 표현하는 장식성이 뛰어나 장식재로 사용하였다. 무르지 않고 단단한 물성으로 자단목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재료를 상감하기도 하였다. 자단을 포함하여 목화기법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대개 진귀한 목재와 보석이 사용되어 목화공예품은 고가의 물품이었다.

『대당육전』에 기록된 ‘목화자단척’은 황제에게 올리는 진상품이다. 척은 길이를 재는 용도이며 상징적인 의식 물품이었다. 문헌에 기록된 목화자단척은 현전하지 않으나, 일본 쇼소인(正倉院)에 상아로 만든 척이 소장되어 있다. 쇼소인의 소장품으로 좁고 가느다란 물건에 목화기법을 활용한 예도 남아있다. <자단금전병향로(紫檀金鈿柄香炉 第5号)>는 외면과 자루에 자단을 사용한 후, 금속과 보석을 박아 장식하였다. <서각여의(犀角如意 第5号)>는 자루의 장식재로 흑단, 자단, 회양목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공예품을 통해 면적에 상관없이 귀한 장식을 할 때 목화장식을 하였고, 이에 자단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바둑판, 쌍륙놀이판, 함 등의 소형 가구에서도 유사한 제작기법이 확인된다.(그림 4)<sup>89</sup>

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은 금선, 상아, 녹염(綠染)한 사슴뿔, 회양목, 흑단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무늬를 나타냈다. 목재의 색과 배치를 통해 일정한 문양을 형성한 것부터 금선, 자개, 상아로 그림과 같은 화면을 구성한 것까지 다양하다. 자단 바탕에 자개와 대모를 장식한 목지나전도 나타난다. 목지나전은 단단한 나무 바탕에 자개를 상감하여 장식하는 기법으로, 목화기법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칠지나전(漆地螺鈿)의 이전 형태로 보고 있다. 쇼소인에 소장된 당대 비파와 완함은 뒤판을 자단으로 하여 대모와 자개로 장식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나전자단비파(螺鈿紫檀琵琶)>와 <나전자단완함(螺鈿紫檀阮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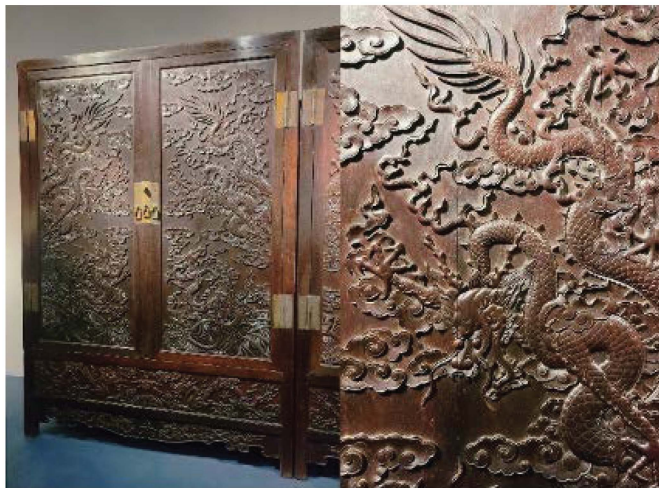


<그림 4> <木画経箱>, 일본 나라시대(8세기),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89 이미지 출처: ColBase ([https://colbase.nich.go.jp/collection\\_items/tnm/N-71?locale=ja](https://colbase.nich.go.jp/collection_items/tnm/N-71?locale=ja))

비파와 완함의 재료로 자단이 쓰인 이유는 나무가 단단하여 악기를 만드는데 적합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악기 제작을 위해 좋은 내구성과 울림통, 자단이 주는 장식성을 모두 활용하였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도 비파의 재료로 자단과 유사한 재료가 언급된 바 있다. 당비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며 뒤판으로는 화리가 가장 좋고 단단하고 빛이 좋은 나무는 모두 쓸 수 있다고 하였다.<sup>90</sup> 해금의 재료에도 화리가 있어 단단하고 결이 고운 나무를 악기의 재료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sup>91</sup> 화리란 자단과 다른 화리나무로 보기도 하지만, 자단의 일종으로 화려한 색을 지닌 아름다운 목재를 가리킨다. 『본초강목』은 화리에 대하여 자단과 비슷하면서 색이 붉고, 나무의 성질이 단단하며 자홍색을 띤다고 설명하였다.<sup>92</sup> 조선은 자단을 국내에서 수급이 가능한 나무로 보았고 붉은색의 단단한 목재를 지칭하였다. 이에 당비파의 제작에 사용된 자단이 조선시대에 화리로 인식되었거나, 자단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화리를 자단의 일종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악기의 부속으로 금(琴)의 끝부분을 장식하거나 현을 올려놓는 금주에 자단을 사용한 것이 소인, 도쿄국립박물관에 남아있다.

공예품에 쓰인 자단은 주로 중국의 공예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동남아시아의 자단이다. 자단은 목질이 치밀하여 결이 곧고 단단하다. 이러한 나무는 섬유질이 튼거나 부서지는 일이 적어 세밀한 조각에 적합하다. 가구를 만들면 뒤틀림이 적고 내구성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은 주로 명청시기에 자단에 조각을 새겨 조각품, 필통, 가구 등을 제작하였다. 국내에서 완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신안 앞바다에서 출토된 원의 자단목과 부자재들을 통해 원대에도 자단목을 조각하여 가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크기가 큰 조각이나 가구는 자단목 판재를 여러 개 연결하여 하나의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 많은 양의 자단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



<그림 5> <紫檀雕云龙纹大方角柜> 우측 문 조각 세부, 청대, 상하이박물관 소장, 직접 촬영

90 이혜구 역,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p.429.

91 이혜구 역, 위의 책, p.432.

92 李時珍, 『本草綱目』 卷35, 「欄木」 藏器曰: 出安南及南海. 用作床几, 似紫檀而色赤, 性堅好. 時珍曰: 木性堅, 紫紅色. 亦有花紋者, 謂之花欄木, 可作器皿・扇骨諸物. 俗作花梨, 誤矣.

『담헌서(湛軒書)』와 『계산기정(薊山紀程)』의 내용에 따르면 청에서는 궁궐이나 높은 신분이 사용하는 의자, 탁자, 관곽 등의 가구재로 자단을 사용하였다.<sup>93</sup> 기록에는 가구에 사용한 목재의 종류만을 소개하여 공예품의 형태나 장식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현전하는 유물로 상당수의 자단 가구가 남아있으며, 기물에 새겨진 화려한 조각을 확인할 수 있다. 자단필통은 주로 원통형의 목재에 화려한 조각을 가미하거나 자개나 옥을 상감하여 장식하였다. 문헌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화려한 조각과 보석 장식으로 인하여 쉽게 볼 수 없는 공예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그림 6)<sup>94</sup> 필통 외에 필세, 컵, 화병, 그릇 등의 외면에 조각을 새긴 공예품이 남아있으며, 작은 크기의 기물에서도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의 조각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sup>95</sup>



<그림 6> <紫檀木鏤雕會昌九老圖筆筒>, 명대, 베이징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7> <浮雕螭紋嵌銀絲回紋紫檀扁瓶>, 명대, 상하이박물관 소장

열대기후에서 자라나는 자단목은 나무가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을 정도로 무겁다고 알려져 있다. 자단의 무게감을 활용함과 동시에 장식을 위한 물건으로 축두(軸頭)를 제작하였다. 축두는 회장에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는 부위이다. 축두의 재료로는 금속, 옥과 같이 장식성이 높은 귀중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목재로는 자단을 선택하였다.<sup>96</sup> 축의 색을 달리하여 문헌의 보관을 구분하기 위해 자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육전』에 의하면 창고에 따라 사용되는 축이 모두 달랐는데, 그중 자고(子庫)는 조자단축(雕紫檀軸), 자대(紫帶), 벽아첨(碧牙籤)을 써서 분별하였다 한다.<sup>97</sup> 일본은 경전의 축두로 자단을 사용하였다. 나라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자지금자화엄경(紫紙金字華嚴經)>과 <아도세왕경(阿闍世王經)>에서 자단을 확인할 수 있다.

93 洪大容, 『湛軒書』, 「燕記」. 石門以西. 松杉絶罕. 惟廟堂. 時有一二株而已. 以此凡宮室, 椅卓, 棺槨諸具. 別有良材. 非椶非楸. 細理堅韌. 非松杉可比也. 其花梨, 紫檀, 降眞, 烏木, 沉香之屬, 出自南徼外. 只供貴家翫器而已.;

『薊山紀程』 宮室椅卓棺槨之材. 非椶非楸. 細理堅韌. 非松杉之比. 花梨, 紫檀, 降眞, 沈香, 烏木等器. 多是貴家物.

95 이미지 출처: 베이징고궁박물관 ([https://intl.dpm.org.cn/Carvings/id\\$/51439.html](https://intl.dpm.org.cn/Carvings/id$/51439.html)).

96 이미지 출처: 상하이박물관(<https://www.shanghaimuseum.net/mu/frontend/pg/article/id/Ci00019855>).

96 장연희, 앞의 논문, pp.53-68.

97 『唐六典』 卷9, 「中書省」, 集賢殿書院… 其經庫書鈔白牙, 黃帶, 紅牙籤, 史庫書鈔青牙軸, 縹帶, 綠牙籤, 子庫書雕紫檀軸, 紫帶, 碧牙籤, 集庫書綠牙軸, 朱帶, 白牙籤, 以為分別.



자단목은 결이 곧고 표면의 감촉이 부드럽다. 매끈한 표면과 단단한 물성으로 자단은 손에 쥐고 사용하는 물건을 제작하기에 적합하다. 여의는 종교용품으로 승려의 위엄을 나타내는 공예품이다. 강론하는 스님이 혼자서 글을 기록하여 두고 참고하는데 쓰거나 등의 가려운 곳을 긁을 때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의는 오랫동안 손에 들고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감촉과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물품이기에 진귀한 재료로 제작하는 것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자단은 온도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목재이면서 표면이 매끈하고 부드럽다.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가 높은 재료이기도 하다. 목화의 재료로 자단을 사용한 예가 있으며, 자단목 바탕에 옥과 같은 보석을 박아 장식한 여의도 전해져 자단이 귀한 재료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그림 8)<sup>98</sup>



<그림 8> <紫檀嵌玉如意>, 청대(19세기), Asian Art Museum 소장.

부채의 자루에도 자단을 사용하였다. 『임원경제지』에 『준생팔전』을 인용한 내용 중 단선의 제작에 자단으로 된 빼어난 자루를 얻어야 아름다운 부채가 된다는 대목이 있다. 또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자단이나 종려나무로 자루를 만든 부채가 좋다고 설명한다.<sup>99</sup> 자단과 종려나무는 특유의 색상과 무늬로 장식성이 빼어난 목재이다. 더하여 자단은 향이 있어 부채와 같이 바람을 일으키는 공예품에 사용하였을 때 좋은 효과를 낸다. 아쉽게도 단선의 자루가 자단으로 제작된 것은 찾기 어려우나, 대신 향목을 장식한 부채인 <이문전제식침향목조상감지란도단선(李文田題 識沉香木雕鑲嵌芝蘭圖團扇)>이 상하이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그림 9)<sup>100</sup> 침향목은 목재가 단단하면서도 색이 있어 자단과 함께 목화기법에 사용한 재료이다. 침향목도 향목으로 나무의 향이 좋고 탈취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한 신분을 지닌 이들은 불쾌한 냄새를 지우면서 신체에 향기가 배도록 하고, 향기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하였다. 동시에 사용자가 향기로운 물건을 통해 향취를 느끼고자 하였다. 침향목과 자단은 은은한 향으로 인한 효과를 느끼고자 부채의 재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98 이미지 출처: Asian Art Museum (<https://searchcollection.asianart.org/objects/3649/wishgranting-wand>).

99 徐有榘, 『林園經濟志』, 「怡雲志」, 團扇, 紙糊如此式樣亦佳, 但得竹根, 紫檀妙柄為美. 舊有鵝毛扇, 即羽扇也, 製度精緻. 《遵生八牋》 近來華造棕葉扇, 竹蔑飾邊, 紫檀或棕櫚為柄者佳. 東造竹骨紙糊, 作梧葉樣髹漆者, 亦足充用. 《金華耕讀記》

100 이미지 출처: 상하이박물관(<https://www.shanghaiuseum.net/mu/frontend/pg/article/id/CI00019783>).



<그림 9> <李文田題識沉香木雕鑲嵌芝蘭圖團扇>, 청대, 상하이박물관 소장

앞서 살펴본 공예품은 대부분 중국과 일본에서 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삼국사기에 자단의 사용을 규제하는 기록 외에 구체적으로 자단으로 공예품을 만든 기록이 희소하다. 이는 자단이 지닌 특성과 가치로 인하여 국가에 따라 선호도가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5. 동아시아 자단의 선호와 취향

자단은 한중일에서 모두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실제 사용한 수종은 다양하다. 조선과 일본에서 인식하던 자단이란 붉은 빛의 향나무로, 오늘날 측백나무과의 향나무이다.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콩과 나무의 자단은 비교적 수입이 원활하였던 중국에서 공예품의 재료로 선호하였으며, 다수의 공예품이 오늘날에도 전하고 있다. 한국은 자단을 의례용 향재로 취급하였고 중국에서는 공예재료로 선택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단의 의미와 선호했던 용도와 이유를 살펴보겠다.

단종 3년(1455)의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실에서 한 해에 사용한 자단 양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나타난다.<sup>101</sup> 제용감(濟用監)에 저축한 자단향이 2286근이며, 국가의 자단향 1년 소용이 512근에 지나지 않아 4년 동안 소용할 수 있는 양이기에 강원도의 상납을 3년간 멈추어 민간의 폐단을 구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512근은 약 307kg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조선왕실에서는 1년 동안 약 300kg의 많은 양의 자단향을 사용하였다. 또한 제용감에 이미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인 2286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단향의 수급이 상당히 용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실에서는 제례를 많이 행하였기에 많은 양의 향이 필요하였다. 조선 왕실은 수급이 용이했던 자단향을 의례용 향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제례를 주도하는 인물에 따라 침향과 자단향의 위계가 비롯된 것으로 추정한다.

101 『端宗實錄』 卷13, 단종 3년(1455) 3월 8일, 議政府據戶曹呈啓: 今考濟用監所儲紫丹香, 二千二百八十六斤, 國家一年所用不過五百十二斤, 則今其所儲, 足以供四年之用. 請限三年, 令江原道勿上納, 以除民弊. 從之.

중국에서는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콩과 나무의 목재를 자단으로 인식하였고 공예품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중국에서는 자단향을 분향의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고급 목재를 태워 없애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이고, 자단향보다는 침향과 같은 다른 향재를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침향은 분향용으로 애용되어 자단과 달리 공예품으로 제작된 사례가 많지 않다.

자단은 좋은 향기와 자주색의 심미적 특성이 있으며, 단단한 내구성과 목직한 무게감의 실용적 특성을 지녔다. 그러나 시대와 국가에 따라 자단에 대한 선호는 달랐다. 이는 자단이 지닌 특성과 함께 희소성과 높은 가치로 인한 유행과 선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자단으로 제작한 공예품이 전하지 않으나, 『삼국사기』에서 자단으로 공예품을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골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예재료에 대한 규정으로 수레와 상, 마구의 안장들을 제작할 때 자단의 사용을 금하였다. 특히 수레 제작 규정에서 높은 골품이었던 진골도 수레의 자재로 자단을 사용할 수 없었다. 안장들은 진골 여성의 안장들에 자단을 사용할 수 있었다. 신라시대 자단의 수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어렵다. 그러나 자단이 공예재료로 사용되었고 진골의 사용도 규제되었다는 점에서 당대 중국에서 사용하던 자단과 유사한 수종의 수입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단 사용에 골품과 공예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있었던 것은 당시 자단의 교역이 많이 이루어져 당으로부터 재료의 공급이 원활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단으로 다양한 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쇼쇼인에 소장된 <목화자단기국(木畫紫檀棋局)>은 사용된 목재의 종류, 『국가진보장(國家珍寶帳)』의 기록 등으로 백제에서 전한 물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화자단기국>은 매우 뛰어난 수준의 목화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한반도에서도 자단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목화공예품을 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삼국사기』에 자단과 함께 규제된 재료들도 목화기법의 재료와 연결되어, 신라에서도 자단을 사용한 목화공예품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에는 『임원경제지』에서 중국의 문헌을 인용하여 자단 공예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자단 공예품의 기록이 다수 나타나는 점을 통해 조선에서도 자단목으로 제작하는 공예품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단필통과 철여의 등 기이한 물건을 보았다는 『연행일기(燕行日記)』의 기록을 통해 자단을 사용한 공예품을 고급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자단을 고급재료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자단을 이용해서 공예품을 제작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오산설림초고』에는 성종대에 자단을 건축재로 사용한 이를 처벌한 기록이 있다. 자단으로 마루를 깐 이는 임금의 장인이었는데, 왕실의 외척일지라도 고가의 자재를 사용하여 집을 지었을 경우 사치로 여겨져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공예품과 건축 자재에 수입산 고급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했다. 조선의 자단은 향으로, 각종 제전에 사용되어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이면서 조선 내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았던 재료이기에 많은 수의 공예품을 제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많은 공예품이 전하는 중국은 자단에 대한 선호가 높아 공예품의 제작이 활발하였다. 중국에서 사용한 자단은 동아시아에서 자생하지 않는 목재이기에 자단의 수급은 수입에 의존해야 했으며, 자단목에 대한 높은 수요는 재료의 희소성과 높은 가격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자단으로 제작한 공예품은 고급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자단 공예품은 8세기의 유물부터 자단으로 제작한 것이 전한다. 자단은 장식성이 높은 목재이기에 색감을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목화기법의 재료로 선택되었다. 내구성이 좋아 목 지나전의 바탕재로 사용되었으며, 악기와 놀이판과 같이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물품에 자단을 사용하였다. 명청시기에는 대형 가구와 여러 작은 소품의 제작에 자단을 사용하였다. 시대에 따라 공예품에 사용되는 자단의 용도는 조금씩 변화하였으나 꾸준히 선호되며 자단 공예품 제작은 지속되었다. 자단은 고가의 재료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이로 인하여 명대에는 사치풍조가 만연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때 송정황제는 사치스러움을 경계하기 위하여 자단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우수한 나무의 특성과 재료가 지닌 높은 가치로 인해 자단의 선호는 지속되었다. 근대기 중국에 서양문물이 유입되면서 포크, 시계와 같은 물품을 제작할 때도 자단을 사용할 정도였다.

중국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도 자단 공예품이 유행한 시기가 있다. 나라시대와 에도 시대에 제작된 공예품이 전한다. 자단 공예품은 금박이나 금분, 자개 등을 사용해 장식한 것으로, 부와 권세를 자랑할 만한 공예품을 제작할 때 자단을 사용하였다. 일본은 토의에 포함된 자단보다는 수입을 통해 들어오는 자단을 공예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나라시대의 경우 당과 한반도와의 교역을 통해 이국의 문물을 들였던 시기로, 자단의 사용은 당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단 공예품이 유행한 에도시대는 나가사키항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산물이 유입되었다. 일본의 자단으로 알려진 황단 또한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것으로 주요 원산지는 라오스, 베트남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공예품에 사용되는 자단은 자생목보다 수입되는 목재를 선호하며, 자단이 지닌 심미적인 특성과 함께 재료의 희소성과 가치가 높아 공예재로 선호하였다.

조선에서 향나무를 자단의 명칭으로 부른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생각된다. 첫째로는 자단나무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본적이 없어 향나무를 자단나무로 인식한 것이다. 자단의 대표적인 특징은 붉은 빛깔과 향기였다. 향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색이 비교적 붉고 자단과 마찬가지로 향기가 난다. 이러한 향나무의 특성은 자단과 비슷하다. 따라서 해외의 문물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 잘못된 명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자단이라는 이름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자단 공예품은 고급문화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자단이란 자줏빛 단향목, 즉 자줏빛의 향나무라는 뜻이다. 향나무 목재의 단면은 자단 만큼 진한 자줏빛을 띠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줏빛의 향나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자색은 고대부터 고귀한 신분을 대표하는 색상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자색에 부여된 고귀함과 지위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조선시대에 가장 높은 지위의 상징에는 다



홍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자연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희귀한 색인 자색은 재료의 희귀성과 금제로 여전히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복식의 저고리 깃이나 고름과 같은 작은 부위에 자색을 사용하여 색이 가진 고귀한 의미를 강조하였다.<sup>102</sup> 작은 부위에 표현된 자단색은 미적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에서는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자단과 다른 종류의 향나무를 자단이라 불렀다. 이는 자단나무와 향나무가 갖는 공통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급목재였던 자단나무에 대한 수요와 자죽빛이 갖던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에서 자생하지도 않고 무역으로 수급도 어려웠던 목재에 대한 수요가 비슷한 목재에 그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자단 공예품을 선호했던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자단을 시대의 상황과 계급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전하는 유물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자단을 공예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자단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아직 발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성 관찰로 목재를 판별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목재의 수종분석을 통해 당시 사용한 목재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 과학조사는 전통사회의 재료를 이해하고 고증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조선에서 자단으로 인식되었던 나무임이 밝혀진다면 전통사회에서 쓰인 자단의 단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수종 분석을 통해 고대의 유물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유행했던 자단 공예품이 한국에서도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자단에 대한 연구의 확장과 목재 수종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도 자단의 쓰임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6. 결론

자단은 상록활엽교목으로 인도 남부에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 걸쳐 분포하며, 자주색과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콩과 나무의 목재를 자단으로 불렀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측백나무과의 향나무를 자단으로 인식하였다. 향나무를 언제부터 자단으로 혼동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 18세기 후반 고증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자단을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서 자단의 정의와 설명을 찾아볼 수 있으며, 대체로 조선에서 부르던 자단은 측백나무과의 향나무였다.

향나무를 자단이라 인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자단의 특징인 특유의 향과 색상이 향나무와 유사하여 혼동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가의 재료인 자단이 높은 신분과 부의 상징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자단은 한반도에 자생하지 않아 더욱 귀한 재료로 인식되었고 점차 자단의 명칭을 향나무까지 확장하여 사용한 것이다.

102 김순영, 「조선시대 복식의 적색계와 자색계 색명(色名)체계」,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30.

한국에서 자단으로 인식하였던 측백나무과의 향나무는 의례와 치료의 용도로 쓰였다. 왕실 의례를 진행할 때 임금이 주관하는 친제에서는 침향을 사용하고 섭행에서는 자단향을 선택하였다. 수입에 의존했던 침향과 달리 한반도에서 자생하던 자단향은 수급이 원활했을 것이다. 조선 왕실의 향 수요를 충당하기에 적합하였던 자단향은 제례용 향으로 크게 선호되었다. 한편 자단은 금창과 곽란의 치료, 그리고 치통 예방에 효과적이었다. 금창 치료에는 자단 가루를 상처 부위에 도포하거나 물로 복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곽란의 치료를 위해 자단향을 끓여 먹는 처방이 기록되었으며, 치통을 예방하기 위해 자단목을 상투에 꽂는 방법도 활용되었다. 자단으로 금창을 치료한 인물의 경험도 전하고 있어, 실제로 조선시대 금창 치료에 자단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서는 자단을 주로 공예재료로 활용했으며, 자단을 분향으로 사용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분향으로 선호된 침향은 공예품으로 제작된 경우가 희소하다. 이처럼 중국은 공예 재료로 자단을 선택하였고 색상, 단단함, 향, 무게감 등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가구, 악기, 함, 필통 등의 일상품에서 여의와 같은 종교 물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예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장식 재료로 쓰인 경우도 있다. 또한 자단에 목화기법을 장식하는 예도 다수 전한다. 자단목을 활용한 목화 공예품은 황실에서 사용하는 진귀한 물품이었다.

자죽빛 향나무라는 뜻의 자단은 한국, 중국, 일본이 다르게 인식했다. 동아시아에서 지칭한 자단의 수종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일반적인 나무보다 붉은 색을 띠고 좋은 향기가 나는 공통점이 있다. 나라마다 다른 나무를 자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나무의 자생 여부와 조달 방법, 그리고 고유한 특성에 맞게 활용했던 것이다.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자단 공예품의 유행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과 지역에 따라 자단의 의미가 변화하고 여러 수종의 나무를 자단으로 인식했던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단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관련 유물의 수종 분석이 확대된다면 자단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공유한 자단의 명칭과 나라마다 실제 사용한 수종, 그에 따른 활용 방법을 전체적으로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國朝喪禮補編』
- 2 『湛軒書』
- 3 『東醫寶鑑』
- 4 『備邊司謄錄』
- 5 『三國史記』
- 6 『四醫經驗方』
- 7 『世宗實錄地理志』
- 8 『承政院日記』
- 9 『五山說林草藁』
- 10 『五洲衍文長箋散稿』
- 11 『日省錄』
- 12 『醫方合編(意方合部)』
- 13 『朝鮮王朝實錄』
- 14 『拙隱遺稿』
- 15 『宗廟修理都監儀軌』
- 16 『增補單方新編』
- 17 『增正交隣志』
- 18 『林園經濟志』
- 19 『靑莊館全書』
- 20 『度支準折』
- 21 『度支志』
- 22 『廣志釋』
- 23 『大唐六典』
- 24 『明實錄』
- 25 『本草綱目』
- 26 『本草拾遺』
- 27 『本草精華』
- 28 『宋史』
- 29 『元史』
- 30 『新修本草』
- 31 『諸蕃誌』
- 32 『通鑑節要』
- 33 『香譜』
- 34 『藥材質定記事』
- 35 『仏壇産業の現状と今後のあり方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 36 『大陀羅尼末法中一字心呪經』
- 37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 38 『佛說陀羅尼集經』
- 39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40. 공광성, 「고전식물명 자단과 백단에 관한 고찰」, 『국학연구』 32, 한국국학진흥원, 2017.
41. 김순영, 「조선시대 복식의 적색계와 자색계 색명(色名)체계」,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42. 김영숙, 「도금양나무(Myrtus communis)의 명칭문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2, 한국전통조경학회, 2017.
43. 김영숙, 「대추야자나무(Phoenix dactylifera)의 명칭문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1, 한국전통조경학회, 2018.
44. 김영숙, 「에셀나무(Tamarix aphylla)의 명칭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7-1, 한국전통조경학회, 2019.
45. 이선미, 김주덕, 「통일신라기 천연향(天然香)의 종류와 향(香)생활에 대한 고찰」, 『한국화장품미용학회』 7-1, 2017.
46. 여찬영, 「나무 명칭어 한자 자석 연구:떡갈나무류를 중심으로」, 『어문학』 74, 한국어문학회, 2001.
47. 장연희, 「동양 장황에 사용된 축목과 축두에 관한 연구」, 『박물관 보존과학』 19, 국립중앙박물관, 2018.
48. 조항범, 「몇몇 ‘나무’ 이름의 어휘사(2)－‘노간주나무, 노린재나무, 담쟁이, 엄나무’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31, 국어사학회, 2020.
49. 에드워드 H. 세이퍼, 이호영 옮김, 『사마르칸트의 황금 복숭아』, 글항아리, 2021.
50. 이혜구 역,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51.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정담.

## 사사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3년도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조사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 전통재료 및 기술공법의 지속가능한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국제 문화유산 교육과정 및 체계 조사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산기술학과 교수\*  
 김병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산기술학과 박사과정

### 초록

본 조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설치 예정인 문화유산 관련 유네스코 석좌 비학위 최고위 과정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사는 유네스코 석좌가 제공하는 기존의 교육과정은 물론, 국내외의 문화유산 관련 교육과정 전반을 조사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대학의 교육과정, 국제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국내외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등을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또한 문화유산 교육, 훈련 및 역량 강화의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문화유산 관련 비학위 최고위과정 설치를 위한 교육과정 조사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안된 교육과정은 국내외 주요 고위공무원과 국제기구의 지도자 및 한국의 문화와 유산에 관심이 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국내외 교육과정 중 문화유산 관련 최고위과정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정의 유인요인으로 수료증 및 자격증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온라인/오프라인 강좌의 병행 운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외에 본교의 동문회 준회원 자격 수여 등과 같은 보조적 요인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서론

## 1.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1.1.1. 조사의 배경

유네스코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7년 3월 ‘아시아·태평양문화유산 보존 복원을 위한 역량강화’를 주제로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협약 제 2조는 석좌의 목적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훈련, 정보 및 기록화의 통합 시스템을 촉진시키는 것이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목적 중 하나로 ‘문화유산 복원과 보존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통재료와 기술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훈련 워크숍을 조직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1</sup>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는 2021년 유네스코 본부에 지난 4개년 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보고하며 갱신기간 내 활동계획으로 문화유산 관련 유네스코 석좌 인증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안하였다.<sup>2</sup>

이에 유네스코 석좌의 갱신기간인 2021년 3월부터 2024년 12월 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제문화재교육센터는 유네스코 석좌 인증 문화유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내부적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 1.1.2. 조사의 목적

본 연구 조사의 목적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에 개설할 석좌 인증 비학위과정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비학위과정은 2024년 3월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비롯해 국제문화유산 교육과정, 국제 문화유산 전공 교육기관 프로그램, 문화유산교육기관 간의 교류협력 및 기 개설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도록 한다.

기초조사에서는 문화유산 관련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의 정의 및 개념을 바탕으로 특성을 분석하여 각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역할과 필요성을 조사한다. 현황분석에서는 교육기관과 교육대상, 교육과정의 원칙과 목적을 분석한다. 사례분석에서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사례를 도출하여 교육과정 기본 모형을 바탕으로 교육체계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문화유산 관련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 Agreement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UNESCO Chair on Capacity-Building for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Aisa-Pacific Cultural Heritage, Republic of Korea(2017.03.)

2 KNUCH, The UNESCO Chair Work plan for the renewal period,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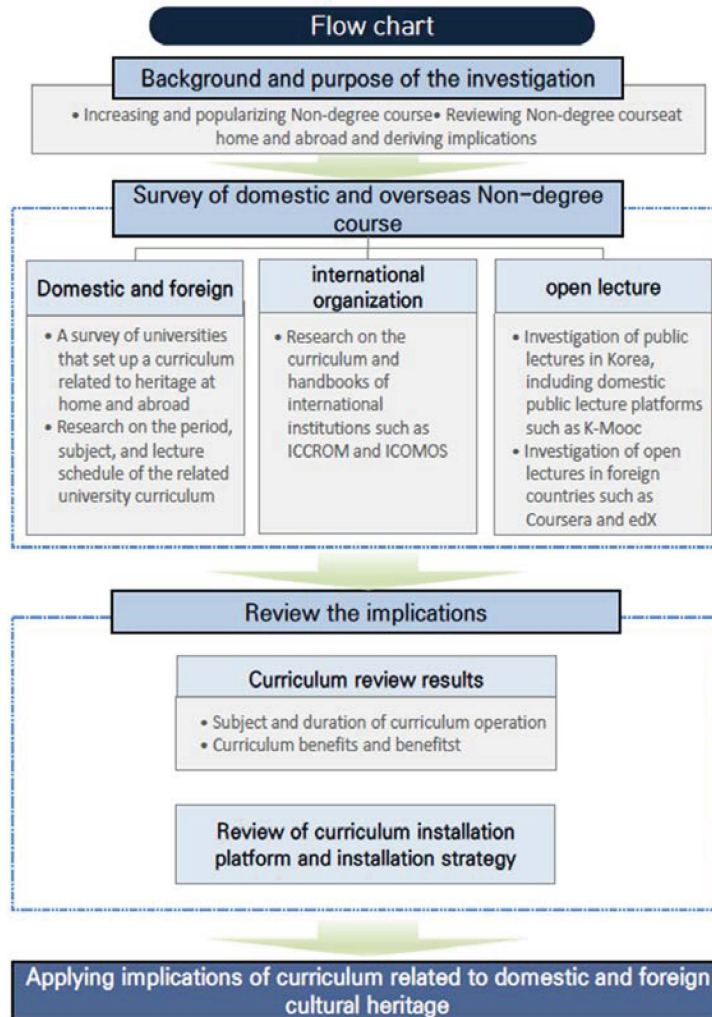
## 1.2. 조사의 범위 및 방법

### 1.2.1. 조사 개요

문화유산 관련 교육은 대학교 차원에서 제공하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이론 및 철학, 윤리적 책임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교육의 주체인 교육자, 객체인 교육생, 그리고 교재 등 매개체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 주체는 교수, 교수자, 교육자를 지칭하며, 교육객체는 교육을 받는 학생, 학습, 교육생을 지칭하고 교육매개체는 교육주제가 되는 교재, 교육 내용, 교육과정을 지칭한다. 문화유산 교육과정은 연구를 바탕으로 유산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토론을 장려하고, 유산에 대한 폭넓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논문 작성을 통한 전문적인 문화유산 실무자로서의 핵심역량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유산 훈련은 전문기관, 정부 부서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말하는데, 대부분 특정 주제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기간이 짧고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유산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자와 훈련생 사이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위치, 기간, 비용, 자원 인력의 가용성 및 현장실습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같은 요인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 교육방식을 채택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01년 처음으로 글로벌 훈련 전략을 채택하였고, 교육 대상은 문화유산 실무자로서 전통적인 ICCROM 훈련 프로그램과 결합한 세계유산의 다양한 측면을 훈련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개설 인증 교육과정은 한국 문화 및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외국계 기업 및 외국인 임원, 한국문화 및 문화유산에 관심있는 국제기구 지도급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의 참여인원은 30여 명 이내로 예상하며 과정 기간은 총 22주(약 7개월) 이내로 계획하고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그림 1> 조사흐름도

### 1.2.2. 조사의 대상 및 범위

본 조사는 문화유산 비학위 최고위과정을 조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의 성격이 ‘문화유산 관련 교육과정’과 ‘비학위 최고위과정’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모두를 충족하거나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모두를 조사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학위 교육과정이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부설 교육기관의 사례를 조사하며, 이 중 문화유산 관련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ICOMOS, ICCROM, 또는 유네스코 석좌와 같이 유산 관련 국제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조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실제 ICOMOS 및 ICCROM 등은 문화유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톨킷 등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된 교재 등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조사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조사 범위로서, 공개강좌 플랫폼을 선택하였다. COVID-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대학의 교육서비스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Coursera, K-Mooc 등의 플랫폼을 통한 공개강좌가 활용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Coursera 등의 Mooc를 통해 협정을 맺은 대학의 공개 강좌가 세계 각국에 서비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의 K-Mooc 등의 플랫폼이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공개강좌 플랫폼에서는 교육과정을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필드조사 방법이 배제된 본 조사에서 접근성이 매우 좋은 조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공개강좌 플랫폼에서의 수강이 가능하므로, 수강을 통한 조사 성과를 검토하도록 한다.

## 2. 비학위과정의 정의 및 종류

### 2.1. 비학위과정 개요

비학위과정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대학 또는 기관의 교육과정을 총칭하는 말로서, 특강과 같이. 단발성의 교육이 아닌 공개강좌, 교육연수 등 일정 교육기간을 갖는 과정을 말한다. 비학위과정은 학력과 무관하게 대학 또는 기관의 주관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치되고 있으며, 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대부분 수료증 또는 일부의 경우 자격증을 주는 방식으로 인증된다.

비학위과정은 대체로 설치된 기관의 도서관 이용증 등 교육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며 기관의 정식 소속인이 갖는 권리를 대부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소정의 교육과정 완료 및 시험 통과시 수료증을 주는 식으로 과정 완료에 대한 수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수료증을 주는 경우에는 기관 명의의 수료증을 제공하며, 자격증의 경우 국가공인기술자격이 아닌 민간 설치의 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격증을 제공하는 비학위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의 IBEC 과정으로서, 해당 과정을 수료할 경우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의 IBEC(I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or Certificate)를 제공한다. 본 조사의 목적이 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설치된 전통문화교육원은 자격증을 직접 수여하지 않고 자격증 특화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2.2. 비학위과정의 종류

비학위과정(Non-degree Course)은 크게 공개강좌와 자격 및 교육연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KNUCH의 최고위과정은 분류상 공개강좌에 해당한다. 공개강좌는 비학위과정의 하나로서,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인 사내대학에서의 정규 교육과정과는 상관없이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내의 연수활동을 말한다.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공개강좌 중 최고위과정은 대학에 개설되는 대표적인 공개강좌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lt;표 1&gt; 공개강좌의 설치 근거

| 법령        | 조항                     | 내용                                                  |
|-----------|------------------------|-----------------------------------------------------|
| 고등교육법     | 제26조(공개강좌)             |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④ |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공개강좌 이외에 자격 또는 교육 연수의 경우 공개강좌에 비해 직무훈련 및 교육을 통한 자격 증 취득 등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공개강좌의 한 유형으로 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 교육과정에 준하는 공개강좌에 비해 취미활동 지도자 양성과정,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등 자격훈련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다. KNUCH에 설치된 유네스코 석좌의 연수 프로그램 또는 KNUCH의 전통문화교육원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등이 이에 속한다.

### 3. 유산 관련 비학위과정 조사

#### 3.1. 온라인 공개강좌

##### 3.1.1. 온라인 공개강좌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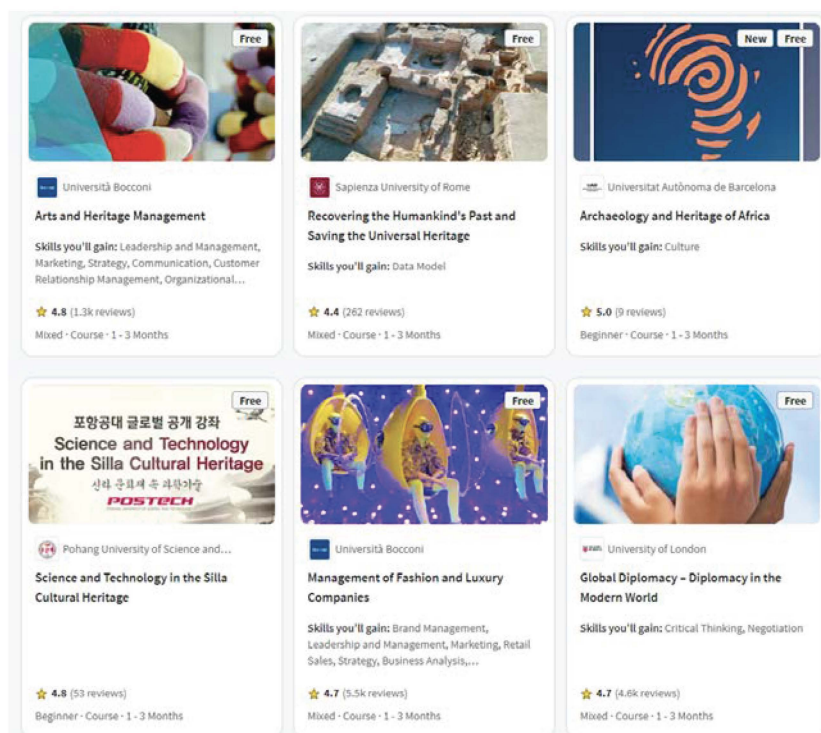
공개강좌는 전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대학 내에 학생 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공개강좌는 오프라인상에서 대면수업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9년 발발한 COVID-19 사태와 함께 온라인 공개강좌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개강좌는 오프라인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본 조사연구의 특성상 해당 강의계획 및 평가도구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조사에 적합하다.

온라인 공개강좌는 대학의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규모 공개강좌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개강좌의 플랫폼은 매우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크게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국내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은 K-Mooc, edwith, Gov-Mooc 등이 있으며, 국외에는 Coursera, edX 등이 대중화되어 있는 편이다.

### 3.1.2. 국외 온라인 공개강좌 사례

#### 1) 코세라(Coursera) 교육과정 사례 조사

코세라는 2012년 설립된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으로, 다수의 대학과 제휴하여 대규모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세라는 2012년 4월 앤드류 응 교수 등이 설립하였으며, 2010년대 초반 MOOC 플랫폼을 주도한 1세대로 여겨진다. 코세라는 다양한 대학과 제휴하여 IT부터 인문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및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정 수강을 통해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다. 수료증을 제공하는 강좌는 보통 유료 등록을 요구하며,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통해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과정은 대체로 4~6주 또는 4~6개월의 단기와 장기 과정으로 나뉘며, 다수의 대학이 학사와 석사 학위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코세라는 현재 상장기업으로서 Coursera Inc.가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위치하고 있다. 코세라의 문화유산 관련 교육과정은 대체로 유산관리 및 고고학, 역사학 등으로 구성되어 개설되어 있다. 유산관리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보코니 대학의 'Arts and Heritage Management'가 있으며, 고고학 관련은 사피엔자 대학, 포항 공대 등 다수의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고학 관련 교육과정은 대체로 고고학 관련 교양과목 또는 고고학 원론이 아닌 특정 대상지를 상정한 고고학 교육과정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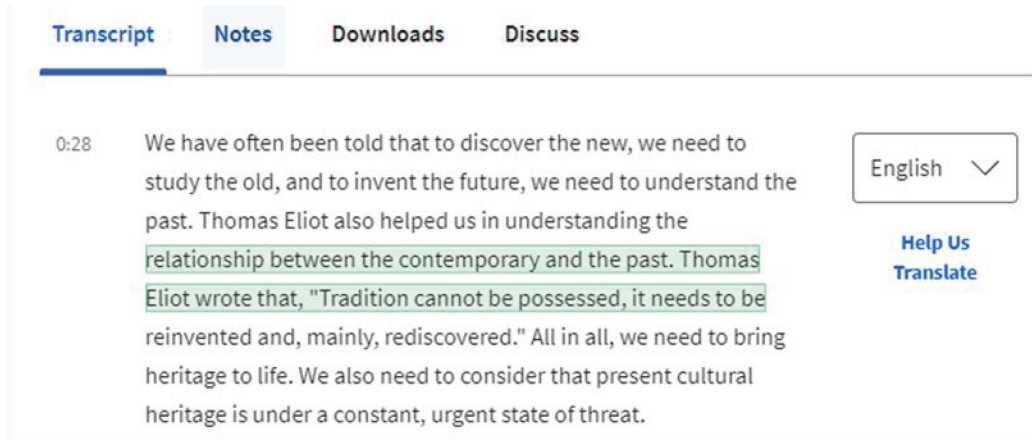


<그림 2> 코세라의 Heritage 관련 교육과정(자료: Coursera Webpage)

&lt;표 2&gt; Art and Heritage Management Curriculum

| 주차 | 주제                                                                  | 차시명                                                                                                                                                                                                                                                                                                                                                                                                                                                                         | 학습활동                                     |
|----|---------------------------------------------------------------------|-----------------------------------------------------------------------------------------------------------------------------------------------------------------------------------------------------------------------------------------------------------------------------------------------------------------------------------------------------------------------------------------------------------------------------------------------------------------------------|------------------------------------------|
| 1  | Emotions Vs. Ratios: Hedonic Consumption and The Role of Experience | 1.1 Heritage Management: An Introduction<br>1.2 Heritage Definition: The Role of UNESCO in Defining Tangible Heritage<br>1.3 Heritage Definition: The Role of UNESCO in Defining Intangible Heritage<br>1.4 What is Art Management?<br>1.5 The Artist, Institution, and Consumer<br>1.6 The Benefit of Art Consumption<br>1.7 Service Management to Support Cultural Consumption (Part 1)<br>1.8 Service Management to Support Cultural Consumption (Part 2)<br>1.9 Wrap Up | Quiz, Practice<br>Peer-graded Assignment |
| 2  | Heritage and the Marketplace: A Delicate Equilibrium                | 2.1 An Introduction to the Dualism<br>2.2 Product Orientation vs. Market Orientation<br>2.3 The Concept of Quality<br>2.4 Customer Value and Value Proposition<br>2.5 Building Visitors' Participation<br>2.6 Targeting and Segmenting<br>2.7 Wrap Up                                                                                                                                                                                                                       | Quiz                                     |
| 3  | Emotions Vs. Ratios: Hedonic Consumption and The Role of Experience | 3.1 Introduction to Experience Consumption<br>3.2 The Consumer Buying Decision Process<br>3.3 Consumer Immersion in Heritage Contexts<br>3.4 The Role of Ambience and Environment on Consumer Behavior<br>3.5 Co-Creating Experiences and Levers for Experience Innovation<br>3.6 Wrap Up                                                                                                                                                                                   | Quiz, Practice<br>Peer-graded Assignment |
| 4  | Branding Heritage To Build Loyalty                                  | 4.1 Introduction to Brand<br>4.2 Capitalizing Brand Identity<br>4.3 The Dynamic Model of Customer Loyalty<br>4.4 Branding Places<br>4.5 Wrap Up                                                                                                                                                                                                                                                                                                                             | Quiz                                     |
| 5  | The Numbers Heritage Needs to Grow                                  | 5.1 Introduction to Performance Measurement<br>5.2 #Satisfaction: The Evaluation of Cultural Experience and the Gap Model<br>5.3 #CRM: Expanding Heritage Audience through Visitors' Research<br>5.4 #funding. Fundraising for Culture: Attracting Donors and Raising Funds<br>5.5 #NPS: Net Promoter Score<br>5.6 #valuechain: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Heritage Funding<br>5.7 #SocialEngagement: Exploiting Digital Transformation<br>5.8 Wrap Up                   | Quiz                                     |
| 6  | Meet the Managers                                                   | 각 전문가 인터뷰                                                                                                                                                                                                                                                                                                                                                                                                                                                                   | Discussion                               |

실제 과정을 신청해 수강한 결과, 학습 과정에서는 강좌에서 활용된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학습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어 사용자를 위해 강의의 스크립트 및 일부 언어에 대한 번역문을 제공하는 등 학습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제공되는 학습자료(자료: Coursera)

## Organization Culture

The **organizational culture** is a set of **values and beliefs** that translates into **management philosophies**, which in turn give individuals a sense of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and help guide their behaviors.

Each company has its own specific and peculiar organizational culture.

There are two main management philosophies:



<그림 4> 스크립트 제공(자료: Coursera)

과정의 평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 모듈의 퀴즈 및 토론포럼에 참여하여 패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토론포럼은 선택사항으로 표시되며, 퀴즈는 각 모듈당 1회씩, 즉 1주에 한 번씩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퀴즈에 대한 평가 기준은 100%의 정답률을 요구하고 있어 장벽이 높은 편이며, 대신 탈락 할 경우 8시간마다 3번씩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과정을 수행하며 퀴즈에 도전한 결과 문제는 문제은행 내에서 랜덤으로 출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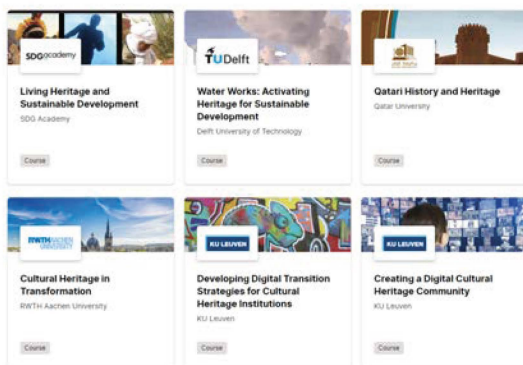
교육과정의 수료에 따른 수혜사항으로는 대학교 명의의 수료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교육과정을 실제 수료한 후, 보코니 대학 명의의 수료증(Course Certificate)이 수여되었다. 실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동안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이 설명한 6주가 소요되지는 않았으며, 온라인 강의의 특성 상 강의의 재생속도를 2배속으로 높일 수 있는 등의 편의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에드엑스(edX) 교육과정 사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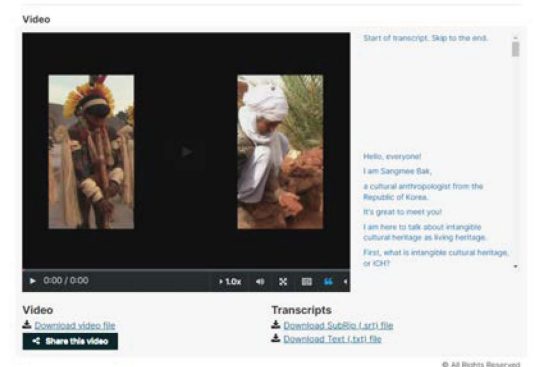
에드엑스는 디지털 교육 회사인 2U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Harvard와 MIT에 의해 설립된 공개 강좌 매체다. 에드엑스의 유산 관련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총 33개의 과정과 2개의 프로그램, 그리고 1개의 석사학위 과정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유산 관련 교육과정은 대체로 유산 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 보다 큰 범위의 의제를 다루는 과정과 특정 지역 소재의 유산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디지털 헤리티지 관련 교육과정 등 IT 특화 교육과정 역시 다수 개설되어 있어 코세라의 교육과정 사례와는 차별성이 있다.

에드엑스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중 SDGAcademy가 제공하는 'Living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는 다양한 전문가의 임상적 사례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무형유산과 개발간의 논의를 검토하는 강좌다. 해당 강좌는 살아있는 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주제로, 무형유산과 개발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세계 각국 유산 공동체의 살아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 과정이다. 본 조사에서는 해당 과정을 직접 수강하고 그 편의성 및 강의도구 등을 평가하였다.

과정은 시작 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총 6개의 모듈을 제공하며, 각 모듈당 1주씩의 소요기간이 산정되어 있으므로 총 과정 수료 기간은 6주에 해당한다. 각 과정을 통해 무형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에드엑스의 경우에도 전 과정에서 동영상 강의와 함께 스크립트 및 강의 교재, 강의자료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세라와 다른 점으로는 강의 영상 자체를 다운받을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편의성 제공은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여건에서도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림 5> 에드엑스 내 Heritage 관련 교육과정  
(자료: EdX Webpage)



<그림 6> Living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강의 시행장면  
(자료: EdX)



과정의 커리큘럼은 1주차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 2주차에서 공동체와 무형유산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후 3주차에서는 무형유산의 보호에 대한 문제를, 4주차에서는 무형유산과 성(Gender)의 관계를, 5주차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무형유산의 충돌 문제를 다룬다. 6주차에서는 회복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해당 주차마다 학습활동으로서 퀴즈를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6주차에서는 토론 활동을 통해 동료평가를 실시한다.

<표 3> Living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교육과정

| 주차                                                                                                                | 주제                                                                                                       | 차시명                                                                                                                                                                                                                                                                                                                                                                                                                               | 학습활동       |
|-------------------------------------------------------------------------------------------------------------------|----------------------------------------------------------------------------------------------------------|-----------------------------------------------------------------------------------------------------------------------------------------------------------------------------------------------------------------------------------------------------------------------------------------------------------------------------------------------------------------------------------------------------------------------------------|------------|
| 1                                                                                                                 | Module 1:<br>What 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hapter 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living heritage - SangmeeBak<br>Chapter 2: Key concepts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ristina AmescuaChávez<br>Chapter 3: The Convention's Lists and Register - SangmeeBak<br>Chapter 4: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CH and other related UNESCO conventions - Ahmed Skounti                                           | Quiz       |
| 2                                                                                                                 | Module 2:<br>Communities and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hapter 1: Who are the communities? - Lucas dos Santos Roque<br>Chapter 2: Why are communities at the cent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 Lucas dos Santos Roque<br>Chapter 3: Community participation - Neel Kamal Chapagain<br>Chapter 4: Community-based approaches - Neel Kamal Chapagain                                                                                                                  | Quiz       |
| 3                                                                                                                 | Module 3:<br>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hapter 1: Transmission and safeguarding - Harriet Deacon<br>Chapter 2: Safeguarding measures - Tiago de Oliveira Pinto<br>Chapter 3: Inventories and safeguarding plans - Ahmed Skounti<br>Chapter 4: Ethics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Harriet Deacon                                                                                                                                                       | Quiz       |
| 4                                                                                                                 | Module 4:<br>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gender                                                     | Chapter 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apes gender identities - Cristina AmescuaChávez<br>Chapter 2: Dynamic gender roles - dynamic living heritage - Deirdre Prins Solani<br>Chapter 3: Gender-responsive approaches to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Deirdre Prins Solani                                                                                                                                      | Quiz       |
| 5                                                                                                                 | Module 5:<br>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livelihoods and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 Chapter 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Marc Jacobs<br>Chapter 2: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ducation - Nigel Encalada<br>Chapter 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health - Marc Jacobs<br>Chapter 4: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come generation - Harriet Deacon<br>Chapter 5: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 Anna Wai Yu Yau | Quiz       |
| 6                                                                                                                 | Module 6:<br>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resilien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peacebuilding | Chapter 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ural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 Rahul Goswami<br>Chapter 2: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onflict-related emergency situations - Martín Andrade-Pérez<br>Chapter 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reventing and solving disputes - Martín Andrade-Pérez                                                                                                                    | Discussion |
| Conclus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for humanity - Cristina Amescua Chávez |                                                                                                          |                                                                                                                                                                                                                                                                                                                                                                                                                                   |            |

### 3.1.3. 국내 온라인 공개강좌 사례

#### 1) K-MOOC 교육과정 사례 조사 : 한국의 세계유산

K-MOOC는 MOOC, 즉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화를 현지화한 플랫폼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K-MOOC에는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한국의 다양한 대학이 무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의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거나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K-MOOC와 MOOC와 같은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으로는 edwith(에드워드), Gov-MOOC, KOOC 등이 있다. 현재 KNUCH의 유네스코 석좌에서 추진하는 비학위 문화유산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MOOC 플랫폼에 대한 조사는 본 연구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MOOC는 한국형 MOOC를 표방하며 2015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10여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여 700개가 넘는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중에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도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다. K-MOOC에는 인문, 사회, 교육,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및 강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옥 또는 문화유산과 같은 교육과정 역시 포함되어 있다. K-MOOC 역시 코세라와 같은 국외의 MOOC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 달성시 강좌의 수강 종료와 함께 이수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퀴즈 또는 과제 달성 여부를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코세라나 에드엑스와는 다르게 K-MOOC는 사기업이 아닌 교육청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이 운영하고 있으며, 제공 강의를 제휴한 대학은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다양한 국내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K-MOOC에는 현재 유네스코 석좌를 운영하고 있는 KNUCH의 강의도 제공되고 있어 이와 연계한 교육과정 수립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MOOC 내에 제공되는 유산 관련 교육과정은 전체 794개 강좌로 나타나며, 주제별로는 인문 주제가, 분류로는 언어와 문학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습기간은 단기(1~6주)가 17개를, 중기(7~12주)가 89개를, 장기(13주 이상)가 206개를 보이고 있어 13주 이상 장기 교육과정이 가장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K-MOOC에서 제공하는 유산 관련 교육과정 중 '한국의 세계유산' 교육과정은 인문 분야의 교양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본 과정은 상명대학교에서 2016년부터 꾸준히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및 기록유산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으로 소개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0년도에 개설된 '한국의 세계유산' 교육과정은 인문과학 분야의 교양 난이도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며, 운영기관은 SMUCK(상명대학교)이고, 총 15주차 과정으로 계획되었다. 주당 교육시간은 약 3시간으로, 총 학습인정시간은 46시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7> 한국의 세계유산 강의 시행장면(자료: K-MOOC)

K-MOOC와 다른 국외 MOOC 플랫폼의 다른 점은, 수강신청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수강신청 기간에만 해당 과정을 공식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청강만 가능하고 이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 과정을 수강 완료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발급함은 물론,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의 교수나 조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역시 해당 대학의 교수 및 조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의 세계유산 교육과정은 14주에 걸쳐 한국에 소재한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유산을 하나씩 공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교육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의 세계유산 교육과정

| 주차 | 날짜      | 주차제목                    | 차시제목                                                                                                                           |
|----|---------|-------------------------|--------------------------------------------------------------------------------------------------------------------------------|
| 1  | 9월 14일  | 세계기록유산1: 조선왕조실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li> <li>•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정과 사초</li> <li>•조선왕조실록의 보관</li> </ul>             |
| 2  | 9월 21일  | 세계기록유산2: 훈민정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민정음의 탄생과 집현전</li> <li>•왜 훈민정음을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하는가?</li> <li>•한글의 수난과 변화</li> </ul>        |
| 3  | 9월 28일  | 세계기록유산3: 조선왕조 의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궤란 무엇인가?</li> <li>•의궤의 편찬과정과 종류</li> <li>•의궤의 수난과 반환</li> </ul>                       |
| 4  | 10월 5일  | 세계기록유산4: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팔만대장경판의 가치와 의의</li> <li>•고려의 30년전쟁과 팔만대장경</li> <li>•장경판전의 가치와 고려의 인쇄술</li> </ul>       |
| 5  | 10월 12일 | 인류무형문화유산1: 강강술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강술래의 기원과 의미</li> <li>•강강술래와 동제(洞祭)</li> <li>•동제의 발전과 쇠퇴</li> </ul>                    |
| 6  | 10월 19일 | 세계유산1: 수원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화성의 축성과정과 특징</li> <li>•개혁신조,정조</li> <li>•화성축조와 정약용</li> </ul>                        |
| 7  | 10월 26일 | 세계유산2: 석굴암과 불국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유산으로서 석굴암과 불국사의 가치</li> <li>•삼국시대 불교의 발전과 불국사 창건</li> <li>•호국불교와 무력적 불교신앙</li> </ul> |
| 8  | 11월 2일  | 중간고사                    |                                                                                                                                |

|    |         |                  |                                                                                                                                                                                     |
|----|---------|------------------|-------------------------------------------------------------------------------------------------------------------------------------------------------------------------------------|
| 9  | 11월 9일  | 세계유산3:<br>창덕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덕궁의 역사와 구성</li> <li>•임오군란과 창덕궁</li> <li>•갑신정변과 창덕궁</li> </ul>                                                                              |
| 10 | 11월 16일 | 세계유산4:<br>종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묘의 역사와 구성</li> <li>•세계적 유산이 된 종묘와 종묘제례</li> <li>•조선시대 왕자의 탄생과 국왕 교육</li> </ul>                                                             |
| 11 | 11월 23일 | 세계유산5:<br>조선왕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왕릉의 가치와 의의</li> <li>•조선왕릉의 구조와 사상</li> <li>•황제릉, 홍유릉을 찾아서</li> </ul>                                                                      |
| 12 | 11월 30일 | 인류무형유산2:<br>판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소리의 유래와 종류</li> <li>•판소리에 담긴 민중적 사유</li> <li>•문화의 경계를 허문 판소리</li> </ul>                                                                    |
| 13 | 12월 7일  | 세계기록유산5:<br>난중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utbreak of the Imjin War and Nanjung Ilgi</li> <li>•Yi Sun-sin and the Imjin War</li> <li>•The human Yi Sun-sin in Nanjung Ilgi</li> </ul> |
| 14 | 12월 14일 | 세계유산6:<br>남한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유산이 된 남한산성</li> <li>•광해군의 중립외교정책과 인조반정</li> <li>•남한산성의수난과병자호란</li> </ul>                                                                  |
| 15 | 12월 21일 | 기말고사             |                                                                                                                                                                                     |

## 2) K-MOOC 교육과정 사례 조사 : 한국의 산사와 서원

K-MOOC에서 제공하는 유산 관련 교육과정 중 하나인 '한국의 산사와 서원'은 인문 분야의 전공 기초 교육과정으로, 동국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소에서 2023년 개설한 교육과정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사와 서원에 대해 그 형성 및 변천과정을 공부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에서 차지하는 불교와 유교의 역할과 그 문화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학습과정은 10주차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당 1.5시간으로 책정되어 총 학습 인정시간은 15시간으로 진행된다. 담당 교수는 현재 한국의 산사와 서원 등재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정병삼 교수 및 경북대학교 사학과 정재훈 교수로 배정되어 있다. 강의평가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득점할 경우 이수증을 발급하며, 퀴즈 100%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교육과정은 1강부터 10강까지 한반도의 불교 및 유교의 수용 과정을 설명하고 한국의 산사와 서원에 대해 학습하는 구성을 하고 있다. 10주차의 교육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t;표 5&gt; 한국의 산사와 서원 교육과정

| 주차 | 주제                    | 차시명                                                                                                                                                                                        | 학습활동   |
|----|-----------------------|--------------------------------------------------------------------------------------------------------------------------------------------------------------------------------------------|--------|
| 1  | 불교의 수용과 산사의 탄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의 수용</li> <li>- 삼국의 사원</li> <li>- 신라 불교의 확립과 산사의 확산</li> <li>- 불국사와 석굴암</li> <li>- 화엄심찰과 교종사찰</li> <li>- 선종의 수용과 선문구산</li> </ul>                | 퀴즈, 토론 |
| 2  | 산사, 한국불교를 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사원의 변화</li> <li>- 교류의 장 사원</li> <li>- 도시사원에서 산사로</li> <li>- 조선후기 산사의 중창</li> <li>- 사원문화의 진흥</li> <li>- 산사의 전형</li> </ul>                        | 퀴즈, 토론 |
| 3  | 성리학 도입과 서원의 탄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사학의 발전</li> <li>- 고려말 성리학의 도입</li> <li>- 조선초 관학의 정비</li> <li>- 조선 전기의 사학</li> <li>- 조선 전기 체제의 한계</li> <li>- 새로운 성리학의 모색</li> </ul>           | 퀴즈     |
| 4  | 유교화와 서원의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원에서 서원으로</li> <li>-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li> <li>- 이황의 서원 건립운동</li> <li>- 사림, 사대부의 근거지로서의 서원</li> <li>- 17세기 이후 서원의 변화</li> <li>- 서원의 문제와 해결</li> </ul> | 퀴즈     |
| 5  | 세계유산 '산사': 수행과 신앙의 터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li> <li>- 한국 산사와 통도사</li> <li>- 부석사와 봉정사</li> <li>- 범주사와 마곡사</li> <li>- 선암사와 대흥사</li> <li>-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li> </ul>                        | 퀴즈, 토론 |
| 6  | 서원: 학문과 추송의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의 구조와 운영</li> <li>- 서원의 장서와 재정</li> <li>- 서원의 교육방법</li> <li>- 서원의 교육내용</li> <li>- 학파 근거지로서의 서원</li> <li>- 제향공간으로서의 서원</li> </ul>                | 퀴즈     |
| 7  | 산사와 서원: 유물 전통의 계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산사와 전통문화</li> <li>- 전통 의식주의 현장</li> <li>- 문화유산과 산사</li> <li>- 한국서원과 전통사회</li> <li>- 유교문화 보존의 현장</li> <li>- 문화유산과 서원</li> </ul>                 | 퀴즈     |
| 8  | 산사와 서원: 지역사회 문화의 거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사와 지방문화</li> <li>- 산사의 유지와 향촌사회</li> <li>- 신앙 공동체로서의 사원</li> <li>- 서원과 지방문화</li> <li>- 서원과 향촌사회</li> <li>- 향촌사회 공동체로서의 서원</li> </ul>             | 퀴즈     |

|    |                      |                                                                                                                                                                   |        |
|----|----------------------|-------------------------------------------------------------------------------------------------------------------------------------------------------------------|--------|
| 9  | 동아시아 산사와 한국의 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원의 형성</li> <li>- 중국의 사원</li> <li>- 일본의 사원</li> <li>- 한국의 사원</li> <li>- 동남아시아의 사원</li> <li>- 사원에 나타난 동아시아불교</li> </ul>   | 퀴즈, 토론 |
| 10 | 중국 일본의 서원과 세계문화유산 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문화유산과 서원</li> <li>- 중국의 서원</li> <li>- 일본의 서원</li> <li>- 한국의 서원(1)</li> <li>- 한국의 서원(2)</li> <li>- 한국의 서원(3)</li> </ul> | 퀴즈     |

## 3.2. 대학교 교육과정

### 3.2.1. 대학교 교육과정 조사 개요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공개강좌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의 공개강좌를 말한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대학의 구성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 및 운영중이며, 이 중에는 유산 관련 교육과정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에 설치된 유산 관련 교육과정은 크게 인증과정(Certificate Course)과 훈련과정(Training Course)로 구분된다. 인증과정은 대체로 대학에 설치된 전문 교육과정을 일반에 개방하며 수강을 완료할 시 수료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훈련과정은 실제 직무에 필요한 기술 또는 전문지식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강을 완료할 시 수료증 또는 민간 자격증을 주는 경우가 많다.

### 3.2.2. 국외 대학교 교육과정 사례

#### 1) 펜실베이니아 대학(Penn) 인증 프로그램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교양학과(Liberal Arts)에는 인증 프로그램(Certificate programs)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과목에서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인증 프로그램은 학제간 주제 영역에서 수강생의 학습과 발전을 지도하고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증은 최대 5개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적증명서에도 기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양학과에 설치된 인증 프로그램 중 유산 관련 과정은 'Cultural Heritage Management'가 있다. 해당 과정은 상호연결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적 맥락에서의 문화유산 관리 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문화유산 관리기구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며, 문화유산 교육자들에게 통합된 문화유산 관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교육과정은 다섯 개의 문화유산 관련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를 먼저 수강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할 시 인증서를 발급하여 인정하고 있다.

## 2)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인증 프로그램

USC에 설치된 'Fundamental of Heritage Conservation' 프로그램은 유산 보존 프로젝트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학업 작업을 강화하려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체 14학점의 자격증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는 유산 보존 관련 기초 학문을 전달하는 4개의 핵심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인증 교육과정은 또한 건축, 조경, 건축 공학, 계획, 공공 미술 행정, 지리학, 인류학 또는 기타 관련 분야의 대학원 과정을 보완하는 데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3) 레이덴 대학교(Universiteit Leiden) 훈련 과정

레이덴 대학교의 HIA 훈련 과정은 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실무적, 공간적, 정책적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HIA는 세계유산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는 유산 관련 영향평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책도입에 있어 그 지역의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본 훈련 과정 역시 HIA를 통해 유산공간의 개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완화하고 유산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통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과정은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IA의 정의, HIA가 적용되는 경우, 평가의 방법 등 실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주제로 편성되어 있다.

### 3.2.3. 국내 대학교 교육과정 사례

####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훈련과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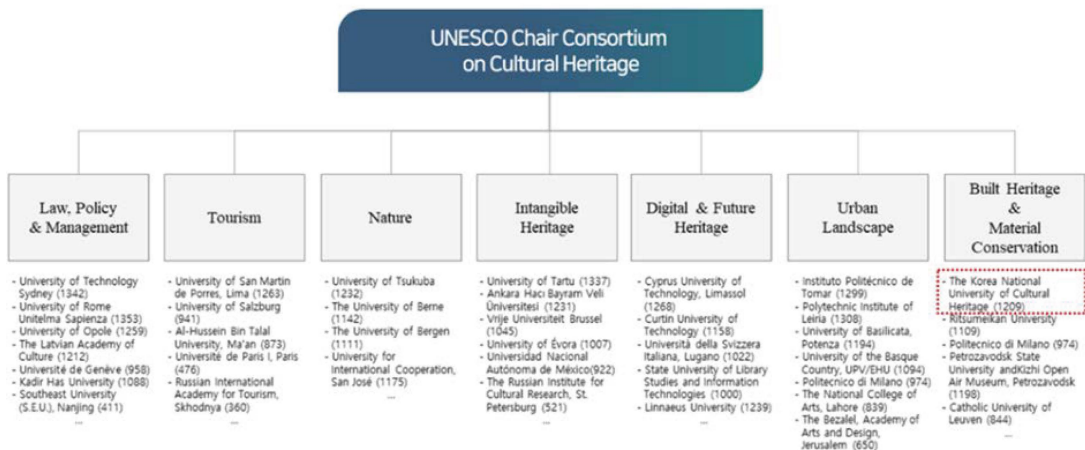
KNUCH에 설치된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 수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 전통기능의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전통문화교육원의 문화재 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은 대표적인 대학교 설치 훈련과정으로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기술 숙련을 토대로 실질적인 문화재수리 기능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실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설된 종목으로는 소목, 단청, 철물, 보존처리, 석공, 미장, 대목 등이 있으며 각 과정마다 현장의 전문가에 의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통문화교육원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무료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입교 등록시 연간 교육비 12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교육과정 전체를 정상적으로 수료할 경우, 120만원의 연간 교육비는 전액 환불되도록 하고 있어 실수요자에게는 무료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보증금 형식의 교육비까지도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전액 면제되고 있다.

교육 지원으로서 교육이 있는 날에는 2인 1실의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실습재료 및 기자재 역시 교육원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육 편의를 높였으며, 문화재 현장 및 공방 등에 방문교육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사례

유산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한 대학기관으로서 먼저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좌가 협약을 맺은 유네스코의 다양한 세계 대학 석좌 및 유니트윈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 있다. 1992년 시작된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은 116개국 700여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관 간 교류 및 공동작업을 통해 유네스코의 철학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석좌가 유일하다.



<그림 8> 문화유산 관련 유네스코 석좌 컨소시엄안(자료 : KNUCH, 2021)

그러나 해외 문화유산 관련 석좌 프로그램은 콜롬비아, 스페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캐나다 등에 있으며 설치 기관은 대학, 박물관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sup>3</sup> 이탈리아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과 몬트리올 대학에서 실시하는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에는 역사도시의 보존과 효과적 개입에 필요한 설계 위주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국제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설치된 유네스코 석좌는 민간에게 완전히 열린 공개강좌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실무자 또는 유산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각 학기에 걸쳐 캄보디아 압사라청의 유산 관련 고위공무원 및 실무자를 초청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직무능력 강화 훈련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필요시 한국 문화유산 현장을 방문하여 실무 과정을 교육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과정이 되도록 편성하였다.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9).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연구. 192쪽.

### 3.3. 국제기관<sup>4</sup>

#### 3.3.1.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매뉴얼 및 지침 사례

2011년 세계유산위원회가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유산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IUCN, ICCROM, ICOMOS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이 매뉴얼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교재로 활용하였다. 관련 매뉴얼 및 지침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 세계유산자원매뉴얼: 자연 세계유산 관리하기(2012)<sup>5</sup>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유산보호당국, 지방정부, 유산현장관리자, 세계유산과 연결된 지역사회, 관리 및 보존 과정의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협약이행에 대한 집중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 매뉴얼은 IUCN이 보호지역의 관리 효율성을 위해 개발한 관리 효율성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구성되어, 6단계의 관리 프로세스로 구분하여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매뉴얼에서 세계유산교육과 해석프로그램은 4번째 단계인 Management process에 포함되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2) 세계유산자원매뉴얼: 문화 세계유산 관리하기(2013)<sup>6</sup>

ICCROM의 주도하에 ICOMOS, IUCN 및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하여 문화 세계유산관리의 자원매뉴얼을 개발하였다. 2009년부터 ICCROM이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의 도구로 개발되어 유산 보존 및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실무자들의 지식, 능력, 기술 및 행동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자와 정책결정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제도적 구조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중장기 부문별 세부전략 수립 및 이해관계자 DB구축 기초조사. WHIPIC

5 UNESCO, ICCROM, ICOMOS, IUCN, World Heritage Resource Manual: Managing Natural World Heritage, 2012

6 UNESCO, ICCROM, ICOMOS, IUCN, World Heritage Resource Manual: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2013

### 3) 교사를 위한 매뉴얼: 평화와 화해를 위한 유산(2015)<sup>7</sup>

유네스코 교육프로젝트인 ‘평화와 화해의 유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패키지의 일부로 개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2001년 유네스코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여,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수중유산에 대한 보호와 이해를 증진하는 평화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유산 프로젝트는 교사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평화와 화해의 개념을 교과과정에 도입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학교 프로젝트, 답사, 전시회 등을 준비하거나 일상 수업을 풍성하게 하도록 제공되는 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4) Enhancing our Heritage 2.0 toolkit(Draft, 2021)<sup>8</sup>

IUCN에서 개발한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2008)의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ICCROM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또는 기타 유산장소의 관리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평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oH 2.0은 기존 툴킷과 동일한 구조를 따르지만 각 유적지의 특정 요구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산실무자는 유산의 가치가 유지되고 관리 목표가 달성되는 정도를 12가지 도구 모음을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세계유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자연, 문화 또는 이 두 가지를 연계한 모든 유산 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매뉴얼에 대한 초안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ICCROM, IUCN, ICOMOS의 전문가검토를 통해 향후 발간될 계획이다.

## 4. 결론

### 4.1. 조사대상 교육과정 분석

조사대상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유산 관련 최고위 교육과정은 없거나 극히 드문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위 교육과정 외 비학위 유산 관련 교육과정은 크게 공개강좌, 대학 설치 교육과정, 국제기구가 배포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개강좌는 유산 관련 다양한 범위의 강좌가 다수의 대학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6주에서 12주 이내의 단기 코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UNESCO, Heritag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Safeguarding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f the First World War Manual for Teachers, 2015

8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 Assessing management effectiveness of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2008



교육과정의 수혜에 있어, 대부분의 공개강좌는 유료등록시 인증서를 수요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수생을 유인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대학교 설치 교육원 등에서는 주로 교양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자격증을 대비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대학 차원에서 자격 인증을 통해 자격증을 직접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KNUCH의 전통문화교육원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학점은행제에 따라 대학 설치 공개과정 등에 학점을 인정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또 다른 유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의 설치 플랫폼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공개강좌 형태로 MOOC 등의 플랫폼에 등록되거나, K-MOOC와 같은 정부 관련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대학 자체 운영 OCW(Open Course Ware)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대학 내 교육센터, 교육원 등과 같은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가 교육성격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목적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시사점 검토

현재 KNUCH는 전통문화교육원 및 국제문화재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비학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 및 문화재실무 관련 단기교육과정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정예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문화재교육센터 역시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교류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방성은 낮은 상황이며 별도의 인증서 또는 수료증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조사된 교육과정은 대부분 인증서, 수료증, 또는 자격증 등의 유인요인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무 현장에 직접 활용되고 있는 이점이 있다. 향후 KNUCH에 문화유산 최고위과정을 설치할 경우 이는 국내 최초의 교육과정이 될 것이며, 이는 온라인-오프라인 공동운영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수 관련 특혜를 줄 수 있는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해외의 유산 실무자 및 전문가를 쉽게 유인할 수 있어 이점이 있으며, 수료자에 대한 대학교 동문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수혜를 제공하여 유산 실무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이룰 수 있는 국제적 유산 최고위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홈페이지(<https://bangkok.unesco.org/>)
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s://heritage.unesco.or.kr/>)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중장기 부문별 세부전략 수립 및 이해관계자 DB 구축 기초조사』, WHIPIC, 2021.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연구』, 2019.
5. Agreement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UNESCO Chair on Capacity-Building for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Asia-Pacific Cultural Heritage, Republic of Korea (2017. 03).
6. Coursera Webpage(<https://www.coursera.org/>)
7. edX Webpage(<https://www.edx.org/>)
8. K-MOOC 홈페이지(<https://www.kmooc.kr/>)
9. KNUCH, The UNESCO Chair Work plan for the renewal period, 2021.
10. UNESCO, Heritag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Safeguarding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f the First World War Manual for Teachers, 2015.
11. UNESCO, ICCROM, ICOMOS, IUCN, World Heritage Resource Manual: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2013.
12. UNESCO, ICCROM, ICOMOS, IUCN, World Heritage Resource Manual: Managing Natural World Heritage, 2012.
13.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 Assessing management effectiveness of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2008.

## 사사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3년도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조사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02

# 2023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해외 연구자 결과보고서

페낭 조지타운 세계유산지역에서의 디지털 기술, 문화유산 보존, 그리고 창의 도시 개발  
쿠 수엣 렌

## # 2023 해외연구자 특별연구주제: 중국 구 조계지 텐진(제 1부)

### 1) 불협화음의 유산 내러티브: 텐진의 전 국제 조계지 박물관에서의 애국심과 향수 사이의 균형 (1부)

마리아 그라바리-바르바\*, 유에 류, 첸시 셴, 산드라 귀낭

### 2) 텐진 조계지의 공원: 역사, 혼종화, 그리고 소비 (1부)

유에 류\*, 마리아 그라바리-바르바, 첸시 셴

### 3) 왕홍 도시주의가 변화시키는 유산 경관: 온라인 인기 관광목적지로서의 조계지

첸시 셴\*, 마리아 그라바리-바르바, 유에 류

## 유산 보호에 저항하기: 동남아시아 국경지대에서 유산 보호와 저항의 관계 탐구

안나 칼스트롬

## 페낭 조지타운 세계유산지역에서의 디지털 기술, 문화유산 보존, 그리고 창의 도시 개발

쿠 수엣 령      말레이시아 과학대학교 사회과학부 개발 계획 및 관리 프로그램 부교수, 도시 계획가

### 초록

문화유산 보존, 디지털 기술, 창조적 도시 개발의 연관성은 4차 산업혁명과 웹 3.0의 도래로 인해 큰 주목을 받았다. COVID-19 팬데믹은 창의/문화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통합과 채택을 가속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기술이 창작, 생산, 배포, 접근, 참여, 소비 등 창조적 가치 사슬 전반을 재구성 했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은 문화 및 창의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화적 환경 변화와 생산 방식의 변화는 도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도시 환경에 미친 영향과 그 변화에 대비하는 준비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말레이시아 페낭의 조지타운 세계유산지역의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뷰 및 관찰을 포함한 질적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창의/문화 산업 종사자, 지역 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의 준비 수준이 연령, 세대, 직업, 사고방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 결과는 디지털 기술의 개념이 조지타운 세계유산지구 맥락에서 운영적으로 개념화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계획에 통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 제언, 함의는 아시아 역사 도시 이론/개념을 재검토하고, 조지타운에서의 문화유산 보존 및 창의 도시 개발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 사사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3년도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조사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Digital Technology, Heritage Preservation, and Creative City Development in George Town World Heritage Site, Penang

Khoo Suet Leng Associate Professor & Professional Town Planner, Development Planning & Management Program, School of Social Sciences, Universiti Sains Malaysia

### Abstract

The nexus between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digital technology, and creative city development has gained much attention as we en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eb 3.0. The COVID-19 pandemic further hastened digital technology infusion and adoption in a city's creative and cultural sector, where technology has reconfigured the entire creative value chain from point of creation, production, distribution, access, participation, and consumption.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i.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ugmented reality (AR), virtual reality (VR), Big Data, and blockchain technology) are widely used in the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Globally, this change in cultural landscape and production mode has triggered concerns among urban stakeholders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ir urban settings have been impacted, and about their readiness to embrace such changes as well as the upsides and downsides of doing so.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will examine the situation of George Town World Heritage Site, Penang, Malaysia.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e., interviews, observation), this study found that readiness levels among those in the creative/cultural industries, local communities, and stakeholders vary according to their age, generation, profession, and mindset.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notion of digital technology needs to be operationally conceptualized for the context of George Town World Heritage Site and systematically integrated into the site's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be significant in revisiting theories/concepts in Asian historic cities and further afield, and also contribute to shaping evidence-based policies for heritage preservation and creative city development in George Town.

###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2023 UNESCO Chair Research Grant Project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 불협화음의 유산 내려티브: 텐진의 전 국제 조계지 박물관에서의 애국심과 향수 사이의 균형 (1부)

|               |                                                     |
|---------------|-----------------------------------------------------|
| 마리아 그라바리-바르바* | 파리1대학교 EIREST 연구소장/교수*                              |
| 유에 류          | 파리1대학교 EIREST 연구소 연구원                               |
| 첸시 셴          | 파리1대학교 EIREST 연구소 연구원 /텐진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과정생*           |
| 산드라 귀낭        |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도시 및 지역 연구소 연구원 / 파리1대학 EIREST 객원 연구원 |

### 초록

최근 중국의 국가 및 지방 당국에 의해 유산으로 인정되었지만, 텐진의 조계지는 여러 측면에서 "부조화된" 유산을 대표한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아홉 개의 외국 세력이 텐진에 "식민지적"으로 존재했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현대 텐진의 박물관 및 해석 센터가 국제 조계지, 즉 서방 강대국이 중국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며 건설한 도시 요소들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국제 조계지에 관한 문헌, 박물관에서 부조화된 유산의 재현, 향수와 망각의 메커니즘, 박물관 서사와 애국심의 관계를 토대로, 이 글은 세 개의 국제 조계지에 위치한 여덟 개의 박물관(장즈린 장군의 저택 마잔산의 저택 텐진 현대사 박물관, 오대도 역사박물관, 전예장 백화점 박물관, 장 하우스, 애스터 호텔 박물관, 텐진 계획 박물관)과 텐진 박물관을 분석한다. 분석은 공통적인 관찰 기준과 박물관 직원들의 반구조화 인터뷰에 기반을 둔다. 이 글은 세 가지 관점에서 주요 서사를 포착하고 분석한다. 첫 번째는 조계지 시기를 중국 근대성의 시작으로 재조명하며, 유명 인사의 삶과 현대적 도시 요소의 출현을 칭송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조계지를 "타인의" 몽환적인 과거, "외국의 땅"으로 보고, 중국의 현대 생활과는 거리가 먼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여기며, 과거를 서구 건축의 테마화와 여가를 위한 논거로 삼는다. 세 번째는 중화민국과 1949년 이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웅들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서사를 제시한다. 이 글은 서구 조계지를 둘러싼 향수와 애국심 사이의 이 양극성을 드러내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 사사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3년도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조사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Narrating Dissonant Heritage: The Former International Concessions in Tianjin Museums between Patriotism and Nostalgia (Part I)

Maria Gravari-Barbas\*

Yue Lu

Chensi Shen

Sandra Guinand

Professor, EIREST, Paris 1 Panthéon-Sorbonne University\*

Associate researcher, EIREST, Paris 1 Panthéon-Sorbonne University

PhD Candidate, EIREST, Paris 1 Panthéon-Sorbonne University; Tianjin University

Researcher at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at the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 associate researcher at EIREST Paris 1–Panthéon-Sorbonne University

### Abstract

Although the concessions have recently been recognized as heritage by the Chinese 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they represent in many respects a “dissonant” heritage, as they are the result of the “colonial” presence in Tianjin of nine foreign powers over several decade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how museums and interpretation centers in contemporary Tianjin present international concessions, in other words, the urban elements built by Western powers that “occupied” parts of Chinese territory. Drawing on the literature on international concessions, the representation of a dissonant heritage in museums, the mechanisms of nostalgia and forgett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useographic narratives and patriotism, the article analyzes a corpus of eight museums (Commander Zhang’s Mansion; Ma Zhanshan’s Mansion; Museum of Modern History of Tianjin; Five Avenues History Museum; Quan Ye Chang Department Store Museum; Zhang House; Astor Hotel Museum; the Planning Museum of Tianjin) located in three different former international concessions, as well as the Tianjin Museum. The analysis is based on a common observation grid and a number of semi-direct interviews with staff from the museums. The article captures and analyzes the main narratives from three perspectives: The first tends to revisit the concession period as evidence of the beginning of modernity in China, in which the life story of celebrities and the emergence of modern urban elements are praised. The second is to see the concession as a dreamlike past of “others,” as a “foreign land” and as events that occurred in a context that is alien to contemporary life in China, where the past is an argument in favor of the thematization and leisure of Western architecture. The third offers selected and targeted narratives focusing on the heroes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ost-1949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is this bipolarity between nostalgia and patriotism vis-à-vis the Western concessions that this paper seeks to bring out and further understand.

###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2023 UNESCO Chair Research Grant Project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 텐진 조계지의 공원: 역사, 혼종화, 그리고 소비 (1부)

유에 류\*

마리아 그라바리-바르바

첸시 센

파리1대학교 EIREST 연구소 연구원\*

파리1대학교 EIREST 연구소장/교수

파리1대학교 EIREST 연구소 연구원/텐진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과정생

### 초록

공원은 현대 중국 도시에서 새롭게 등장한 공공 공간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여가와 오락을 위한 장소로서, 그 개념은 서구에서 기원했다. 사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중국의 개인 정원과 달리, 공원은 대중에게 개방되며, 다양한 오락 및 스포츠 시설을 갖추어 대중이 현대적 도시 생활 방식을 수용하도록 유도한다(Zhang et al., 2012). 제2차 아편 전쟁 이후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아홉 개국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조계지가 있는 도시인 텐진에 조계지를 설립했다. 조계지에서 식민 통치자들은 그들의 필요에 맞게 당시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10개의 특색 있는 공원을 건설했다. 조계지 공원은 텐진의 근대사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의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일부 정원이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이 유산이 위험에 처해 있다(Meng & Chen, 2014). 따라서 급속한 경제 발전과 가속화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원래의 조계지 공원의 역사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이 장소들을 더 잘 보호하고, 새로운 도시 생활 방식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이 도시의 독특한 특성을 강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텐진의 전 조계지 공원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공원의 생성, 발전, 개조를 포함한 역사적 진화; 중국과 서구의 영향을 받은 공간의 혼종화 특성;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공원 소비. 연구 결과, 각 조계지가 중국과 다른 외세에 대해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텐진의 조계지 공원은 단순히 이식되거나 종합된 것이 아니라 중국적 배경 하에 현지화되고 번역되어, 다양한 특별한 경관과 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사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3년도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조사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Parks in the Concessions of Tianjin: History, Hybridization, and Consumption (Part I)

Yue Lu\*

Maria Gravari-Barbas

Chensi Shen

Associate researcher, EIREST, Paris 1 Panthéon-Sorbonne University\*

Professor, EIREST, Paris 1 Panthéon-Sorbonne University

PhD Candidate, EIREST, Paris 1 Panthéon-Sorbonne University; Tianjin University

### Abstract

Parks are a new public space emerging in modern Chinese cities. As a place for ordinary people's recreation and entertainment, its concept originated from the West. Unlike Chinese private gardens that emphasize privacy and introversion, parks are open to the public and equipped with various entertainment and sports facilities to guide the public to accept a modern urban lifestyle (Zhang et al., 2012). From the Second Opium War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nine countries established concessions in Tianjin—the city with the most concessions in China. In the concessions, to meet their needs, the colonists built 10 characteristics parks reflecting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t that time. The concession parks are a mirror of modern history and precious cultural heritage of Tianjin. However, during the urban renewal in recent decades, some gardens have been damaged or demolished, placing this heritage in danger (Meng & Chen, 2014). Therefore, in today's circumstances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accelerated urbanization,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fully understan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concession parks to better protect these sites, meet the needs of new urban lifestyle, and enhance unique features of this city. This study conducts research on the former concession parks in Tianjin from three aspects: their historical evolution, including their creation, development, and renovation; the hybridization characteristics of space with Chinese and Western influences; and the consumption of the parks in the past and nowadays.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each of the concessions attempted to establish its own identity vis-à-vis China and the other foreign powers through the careful arrangement of space, the concession parks of Tianjin were not simply transplanted or synthesized, but rather localized and translated under the Chinese background, characterizing a rich variety of special landscapes and functions.

###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2023 UNESCO Chair Research Grant Project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 왕홍 도시주의가 변화시키는 유산 경관: 온라인 인기 관광목적지로 서의 조계지

첸시 셴\*

마리아 그라바리-바르바

유에 류

파리1대학교 EIREST 연구소/텐진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과정생\*

파리1대학교 EIREST 연구소장/교수

파리1대학교 EIREST 연구소 연구원

### 초록

중국에서는 왕홍(Wanghong) 특성을 지닌 공간을 생산하여 유적지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왕홍”(인플루언서) 도시화의 물결과 함께 관광을 통해 문화유산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본 연구는 천진의 이전 조계지, 특히 이전 영국 조계지이자 현재 인기 있는 관광지인 오다다오(Wudadao)의 과거 조계지 사례를 통해 이러한 과정의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기업가들이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유산의 왕홍 이미지를 통한 관광 홍보를 기념한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이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중심이 되는 왕홍 공간 제작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상징적인 커뮤니케이션 상징으로 작용하는지 탐구한다. 이 과정은 특히 탈식민주의적 맥락에서 문화유산의 현실 위에 겹쳐지는 “시물라크럼(simulacrum)”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제작하는 관행을 통해 확인된 새로운 미학적 공동체의 존재를 특징으로 한다.

### 사사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3년도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조사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The Changing Heritage Landscape Influenced by Wanghong Urbanism: Former Concessions as Internet-Popular Destinations

Chensi Shen\*

Maria Gravari-Barbas

Yue Lu

PhD Candidate, EIREST, Paris 1 Panthéon-Sorbonne University; Tianjin University\*

Professor, EIREST, Paris 1 Panthéon-Sorbonne University

Associate researcher, EIREST, Paris 1 Panthéon-Sorbonne University

### Abstract

In China, the image of heritage has been changed by tourism with the wave of “Wanghong” (Internet-popular) urbanism, which aims to promote heritage sites by producing spaces with Wanghong features.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mechanisms of this process through the case of former concessions in Tianjin, especially Wudadao, the former British Concession and now a popular tourism destination. Driven by local entrepreneurs to generate economic income, the promotion of tourism through Wanghong images of a heritage site is celebrated. This study explores how the images act as iconic communication symbols in the production of Wanghong spaces, where heritage sites are central to their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This process 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a new aesthetic community identified through the practice of producing “simulacrum” images online, which are superimposed on the reality of heritage sites, especially in a post-colonial context.

###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2023 UNESCO Chair Research Grant Project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 유산 보호에 저항하기: 동남아시아 국경지대에서 유산 보호와 저항의 관계 탐구

안나 칼스트롬\*      읍살라대학교 미술사학과 보존과 부교수

### 초록

저항과 유산 간의 관계에 관한 현재의 연구 대부분은 유산의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 개발 지역에서 유산의 철거와 파괴에 저항하는 활동가, 민초, 시민 사회, 그리고 민족주의/식민주의/탈식민주의 맥락 및 갈등과 전쟁 상황에서의 저항 등이 있다. 그러나 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더 미묘하고 비폭력적인 저항의 형태도 인식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주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안적인 유산 보호 전략과 일시적인 관리 방안을 개발하는 경우로, 이는 전통적인 유산관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저항은 유산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 보호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한 예시로 세계유산 지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종종 물질적 유산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세계유산 지정을 거부하는 저항은 살아 있는 유산이나 종교적 유산에 내재된 다른 유산 가치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논문은 동남아시아 접경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이들이 유산 실천 및 보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하고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국제법과 규정에 의해 규정된 유산 보호에 저항하는 것이 유산 보호를 위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현대의 비판적 유산 담론에 따르면 유산 보호를 위해 필수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 사사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3년도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조사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Resisting) heritage protection: exploring relations between resistance an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Southeast Asian borderlands

Anna Karlström\* Associate professor in Conservation, Department of Art History, Uppsala University\*

### Abstract

Much of current research about relations between resistance and heritage focuses on political aspects of heritage: activists, grassroot movements and civil society resisting demolition and destruction of heritage in urban development areas, nationalist/colonial/postcolonial contexts as well as situations of conflict and war. However, there are also other, non-violent and more subtle forms of resistance in relation to heritage protection that need to be recognised, such as resistance by communities who intentionally chose to remain on the fringe, to be able to develop alternative strategies for heritage protection and temporary stewardship that are not accepted within conventional heritage management. Likewise, resistance might not only occur to protect heritage from destruction, it can also be the other way around: heritage protection through resisting protection. One such example is World Heritage designation that implies protection of certain conventional, often material heritage values, whereas resisting World Heritage designation can lead to protection of other heritage values, embedded in for example living and religious heritage.

Through case studies in Southeast Asian borderlands,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and better understanding various forms of resistance and how these relate to heritage practice and protection. Ultimately, it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if resisting heritage protection, framed by inter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results in and/or might even be necessary for heritage protection, according to contemporary critical heritage discourse.

###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2023 UNESCO Chair Research Grant Project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        |                                 |
|--------|---------------------------------|
| 도서명    |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 연구: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
| 주최/주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Heritage 국제센터       |
| 협조     |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 출판일자   | 2023.12.31.                     |
| 편집자    | 김영재, 박지은                        |
| 인쇄 편집자 | 박선영, 김주열                        |
| 인쇄     | 동국카피센터                          |
| 발간등록번호 | 11-1833112-000007-10            |
| ISSN   | 2983-3051                       |

#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연구: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